

국제협력 활동 역량강화 및 성과제고에 관한 연구

2012. 12. 31.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국제협력 활동 역량강화 및 성과제고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 12. 31.

연구책임자 : 이경희 (전파자원기획과 국제협력담당)

연구원 : 성주영 (전파자원기획과 국제협력담당)

이종일 (전파자원기획과 국제협력담당)

요 약 문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ITU연구위원회의 운영·관리를 통하여 ITU-R 및 ITU-T를 중심으로 한 대응체계 개편 사항 등 실질적인 연구반 이슈별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체계화한 개선사항을 정리하였다. 일반인 및 표준화 활동 위원을 대상으로 ITU 회의 진행방법, 국제표준화 절차, 기고서 작성방법, 한국의 표준화 성공사례 및 협상 스킬 등의 국제표준화 전문가 교육을 실시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한국ITU연구위원회의 운영규정은 금년도 운영을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였다.

또한, 올해는 3~4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전파통신(ITU-R) 및 전기통신 표준화(ITU-T) 섹터별 총회가 개최되어 20여개의 연구반 활동에 관여하는 결의사항, 2013~2016 회기동안의 연구범위 및 의장단을 정비한 결과 등을 수록하였다.

SUMMARY

In this report, through operation and management of Korea ITU committee improvements organized which could response exercise and timely by each issues of study groups which reorganization of response system centered by ITU-R and ITU-T are arranged.

ITU summit proceedings, procedure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contribution method of draft, success stories on standardization in Korea, and contents on expert instruc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for general people and standardization committee are included.

Operation rules of Korea ITU committee was made revision document which necessary for improvements through operation in this year.

Also, general meetings of ITU-R and ITU-T sector held every three to four year were held in this year, and Resolutions related to activities of twenties study groups, and ranged results of study ToR, chairmen and vice-chairmen during session in 2013 to 2016 were contained

목 차

| | |
|---------------------------------------|----|
| 제1장 서 론 | 9 |
| 제2장 한국ITU연구위원회 운영 및 관리 | 10 |
| 제1절 대응체계 개선 | 10 |
| 제2절 국제표준화 전문가 교육 | 11 |
| 제3절 운영규정 개정(안) | 19 |
| 제3장 전파통신총회(RA-12) 대응 결과 | 27 |
| 제1절 회의개요 | 27 |
| 제2절 총회의 주요 논의사항 | 29 |
| 제3절 총회 결과 | 32 |
| 제4장 세계전기통신 표준화총회(WTSA-12) 대응 결과 | 37 |
| 제1절 회의개요 | 37 |
| 제2절 총회의 주요 논의사항 | 38 |
| 제3절 총회 결과 | 44 |
| 제5장 결 론 | 54 |
| 참고문헌 | 56 |
| [부록 1] 한국ITU연구위원회 보도자료 | 57 |

표 목 차

| | |
|--|----|
| [표 1] 한국ITU연구위원회 구조 | 10 |
| [표 2] UN산하 ITU의 연혁 | 12 |
| [표 3] 한국ITU연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대조표 | 22 |
| [표 4] 전파통신총회(RA-12)의 회의구성 | 28 |
| [표 5] RA-12 5개 위원회별 의장단 구성 | 28 |
| [표 6] RA-12 일정별 회의체 구성 | 29 |
| [표 7] 연구반별 Question 제·개정 및 폐지 승인 결과 | 32 |
| [표 8] ITU-R 결의(Resolutions) 제·개정 결과 | 34 |
| [표 9] WTSA-12 진행 구조 조정 및 의장단 선임 | 37 |
| [표 10] ITU-T 연구반별 Question 제·개정 및 폐지 승인 결과 | 44 |
| [표 11] ITU-T 결의(Resolutions) 제·개정 결과 | 46 |
| [표 12] ITU-T A시리즈 권고 제·개정 결과 | 48 |
| [표 13] 2013년~2016년 회기 ITU 의장단 현황 | 50 |

그 립 목 차

| | |
|--------------------------------|----|
| [그림 1] 표준화 활동의 주요 결과 문서 | 12 |
| [그림 2] 권고 개발의 일반적 과정 | 13 |
| [그림 3] 한국 주도 기술의 국제표준화 예 | 16 |
| [그림 4] 표준화 과정의 재조명 | 17 |

제1장 서론

오늘날 세계는 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민간 및 정부조직과 함께 전략적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UN 산하 ITU의 효율적 대응은 산업계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롤모델(Role Model)이 되어 새로운 시장개발이 되곤 한다. 한국은 '99년부터 한국ITU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략적 접근을 시도해 왔으며, 단기간에 193개국의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는 ITU의 표준화 시장을 공략해 왔다. 국립전파연구소에서는 금년도 동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응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일반인 및 활동위원을 대상으로 국제표준화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ITU연구위원회의 연구위원은 산·학·연·관 400 여명이 표준화 전문가로 활동하는 대규모 위원회이다. 활동위원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단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운영규정이 매우 중요하다. 금년도 운영을 통하여 개선사항 등을 4가지로 구분하여 운영규정(안)에 반영시켰으며, 차기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13년 운영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다.

금년도는 대규모 국제행사들이 많았던 해이다. ITU이사회를 포함하여 ITU-R·T·D 분야별로 전파통신총회(RA),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 전파규칙(RR)의 국제조약 등을 다루는 WRC, CPM, 국제전기통신규칙(ITRs)을 다루는 세계전기통신회의(WCIT), 3개 섹터별 자문회의(RAG, TSAG, TDAG)등이 개최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ITU연구위원회 운영에 관여하는 총회성격의 RA-12 및 WTSA-12의 회의조직 구성 및 의장단, 연구반별 작업방법 개정, 개별 연구반과 관련된 주요 이슈 결과, 연구반별 연구범위 및 과제, 총회에서 승인된 표준, 연구반별 의장단 선임 결과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2장 한국ITU연구위원회 운영 및 관리

제1절 대응체계 개선

한국ITU연구위원회는 1999년 설립된 이후 ITU 연구반 활동 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현 ITU-R·T·D 3개 연구단 구조로 본원에서 운영·관리하였다. 위원회의 임무는 ITU 및 국제기구(지역기구 포함)의 활동 대응 및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이 있다. 본 위원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에 의해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ITU연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한국ITU연구위원회 구조



금년도 운영위원회는 총 4회 개최되었으며, 주로 한국ITU연구위원회 운영 예산 승인 및 대응구조 변경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기존의 표준화 활동보고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권고비교 검토서등을 통폐합하여 『표준화 활동보고서』로 주요 발간물 등을 일원화 하였다. 지난 '11년 2월에 현 ITU-R 연구반구조는 민간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전파관리(SG1), 방송업무(SG6), 과학업무(SG7)에 외부 연구반장 영입하였고, 간사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맡아 활동하도록 하였다. ITU-R에서는 WRC-12 이후 후속조치로 IMT용 추가 주파수 대역에 대해 기존업무(위성, 방송, 과학 등)와의 공유연구를 담당하는 JTG 4567 이 구성되면서 본 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활동전문가를 보완하여 대응 연구반을 별도로 신설하여 대응하도록 하였다. ITU-T에서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의 이용 확산과 함께 국제 로밍 및 SNS 서비스 등이 다양한 언어·문자를 기반으로 제공됨에 따라 국제적 문화교류 확대 및 ICT 글로벌 시장화와 산업촉진 차원에서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언어 문자입력세트 표준화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문자판 표준(E.161) 개정 추진을 위한 특별반을 구성하였다. 한국ITU 연구위원회는 실질적인 연구반 이슈별로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체계화 하였다.

제2절 국제표준화 전문가 교육

1. ICT 국제표준화전문가 양성교육(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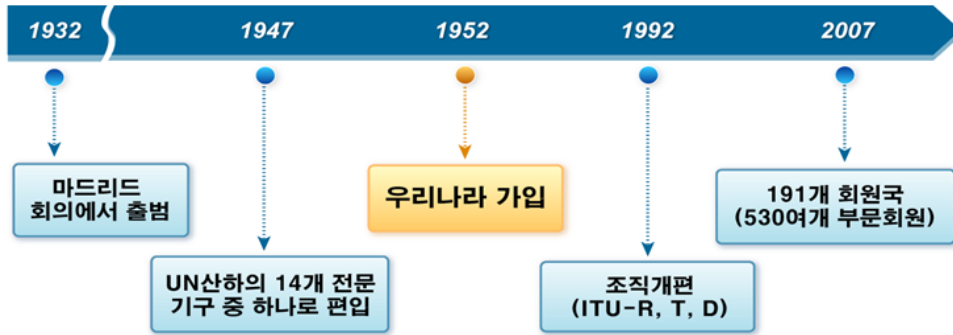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1차 표준화 전문가 교육은 TTA 전문가 교육과 합동으로 개최('12. 5. 17, TTA 대회의장)되어 신규위원 및 대학생 48명 등이 참가하였다. 대부분 ITU를 잘 모르거나 막연하게 아는 내용을 단계별로 쉽게 접근하여 ITU 회의 진행방법 및 국제표준화 절차 및 기고서 작성방법 소개 등을 교육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가. ITU 표준화 활동 기초

효율적 전기통신 서비스로 세계 국가 간 평화적 관계유지, 국제협력 및 사회·경제적 발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UN 산하 전문기구의 하나인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는 193개 회원국과

660여 부문회원이 활동 중이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하며, 기본법을 문서로 헌장(Constitution)과 협약(Convention)이 있다.

표 2. UN산하 ITU의 연혁



우리나라는 1952년에 최초 ITU 활동을 개시하여 주파수 국제분배, 위성궤도 등록 및 국가 간 분쟁 조정, 전기통신, 전파통신 및 방송분야 기술의 표준화 활동을 시작하였다. 표준화의 기본은 해당 연구반의 연구 아이템별 연구과제(Question)에 따라 기술적인 표준화 문서인 권고(Recommendation)를 개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보고서 및 핸드북 등이 함께 개발되어 국가에서 쓸 수 있는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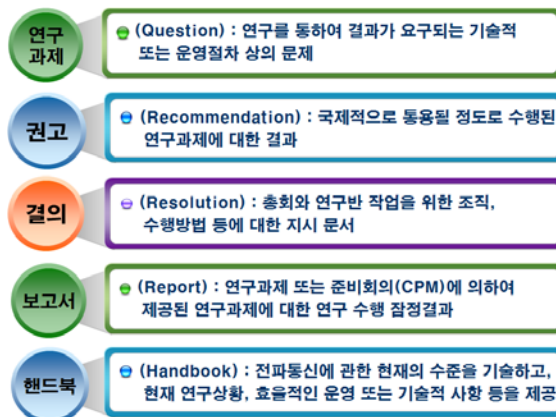


그림 1. 표준화 활동의 주요 결과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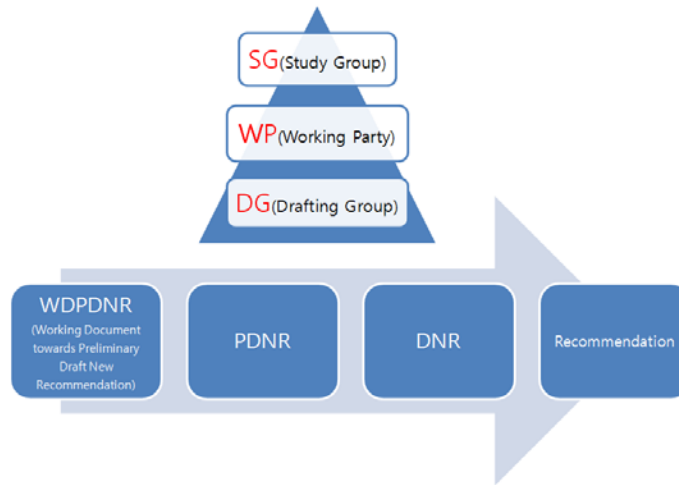


그림 2. 권고 개발의 일반적 과정

이러한 권고 개발의 과정 등은 평균적으로 2 년간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된다. 합의제를 기본으로 하는 ITU 특성상 짧게는 1년, 국가 간 이해관계가 있는 표준은 3~4년 간 걸리는 표준도 있다.

※ 1차 ITU 국제표준화 전문가 교육('12. 5. 17) ITU-R SG4 활동전문가 박주홍(KT) 발표자료 발췌

나. ITU 표준화와 IPR

표준화 활동을 하다보면, 특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며, 표준과 특허의 상호작용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상업적, 과학적, 문학적 및 예술적 분야에 있어서의 지식활동으로부터 나오는 법적인 권리를 일컫는다. 표준특허(Essential patents to standards)는 표준을 구현함에 있어 어느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않고는 해당 표준을 구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해 표준은 기술의 공유화에 대한 첨단기술의 사회적 확산, 기술의 상용화 및 기술 확산을 위한 원심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IPR은 기술의 사유화, 첨단기술 보호, 인센티브, 기술 확산을 위한 구심력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ITU에서 표준특허에 대한 이해를 거쳐 활동할 필요가 있다. ITU에서 IPR의 범위는 특허 및 저작권이며,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RAND(REASONABLE and Non-Discrimiatory)원칙에 따라 사용 허락을 협

상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ITU는 표준화 초기부터 조기 공개를 유도하고 있으나 의무적으로 강제화 된 사항은 아니고, IPR 보유자가 사용허락을 거절할 경우 권고(안) 채택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표준화 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다.

※ 1차 ITU 국제표준화 전문가 교육('12. 5. 17) ITU-R 기초교육 강사 성주영 (국립전파연구원) 발표자료 발췌

2. ITU 국제표준 전문가 교육(2차)

ITU-T TSB 라포쳐 및 에디터 정기 교육을 국내표준화 전문가 교육과 연계하여 '12년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개최하였다. 올해의 주 교육 내용은 ITU 표준화 협상 기술 및 추진사례, IITU-T 연구반 활동 시 라포쳐 및 에디터 등의 단계별 표준화 전략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표준화 전문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그 중 국내에서 활동한 ITU-R 및 ITU-T 전문가의 활동사례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본 보고서에 소개하고자 한다.

가. ITU-R에서의 표준화(권고) 협상과 한국의 표준화 사례

ITU-R(전파통신 부문)은 무선 주파수를 공평하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파(무선)통신에 관한 표준(권고)을 연구하고 승인한다. 전파통신부문에서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과 “지역협정”을 통해 전파통신의 간섭 없는 운용을 보장하도록 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파규칙은 세계전파통신컨퍼런스(WRC)라고 하는 회의체에서 ITU에 가입하고 있는 193 개국이 참여하여 만드는 국제조약이다. 이러한 RR은 2,000쪽이 넘는 방대한 양을 총 4권으로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Volume 1에서는 전파 등의 용어, 업무(Serice)의 정의, 주파수, 분배표, 주파수 등록방법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Volume 2에서는 주파수 국제등록을 위한 특성 등 각 종 부록(Appendix) 1~42까지가 포함되어 있다. Volume 3에서는 전파통신관련 결의(Resolution) 및 권고(Recommendations) 등이 수록되어 있다. 결의 807에서 WRC-15의 Agenda Item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결의 808에서 차 차기 WRC-18에서 준비할 Agenda 등을 수록하고 있다. Volume 4에서는 참조 인용 권고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렇듯 전파규칙은

세계 주요국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나라별 주파수 등을 분배 및 할당하여 이를 준수 하고 있다. ITU-R의 활동은 전파통신총회(RA)에서 제정한 결의 1(작업방법)에 따라 연구반(SG)의 작업방법은 결의 4(전파통신 연구반의 구조)의 업무영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 WP나 TG회의 직후 개최된다. 이는 통상 3-4개 영구 작업반 등에 의해 의제 및 권고를 채택하는 등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게 된다. ITU 활동은 만장일치의 원칙으로 한 국가라도 표준화에 반대하면 중지할 수 있다. 표준화 활동을 할 때, 국가대표(Member State)로 활동하다가 반대하는 다른 부문대표(Sector Member)에게 우위권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권한으로 SG에서 권고 채택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표준화 활동에서 인적 네트워크(Discussion at Floor)은 정말 중요하다. 또한 상대국의 의장단 활동 여부에 따라 자국 내에 표준화 활동에 미치는 사항 등도 관과 할 수 없는 사실이다. 표준화 활동은 대한민국 대표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접근해야하는 사항임을 명심해야 할 것 이다. 표준화 사례 중 "Colorimetry" 이슈가 있다. '97년에 일본에서 HDTV와 호환되면서 더 넓은 색역(color space)방법을 제안하여 SG6에서 권고 BT.1361로 승인하고 다수 권고에서 인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었다. 일본에서 자국 내 색역분석 방법을 '08년 11월에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한국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본과 한국 간의 표준화 경쟁이 시작되었다. 한국(삼성)이 색역확대를 위해 RGB 위치변경을 제안('09년 5월)하고, 일본(NHK)또한 RGB 기준점을 제안('09년 11월)하면서 새로 정의하는 RGB의 상이성 등의 이슈 들이 합의에 이루지 못하였다. 두 나라의 경쟁은 결국 특허 전쟁으로 나갈 수 있는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표준화의 우의에 따라 모니터 수출국인 한국이 일본에게 로열티를 지불할 수도 있었던 사례로 소개 할 수 있다. 총 4년을 거쳐 만든 동 표준은 초반 표준화 대응 및 의장단 활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지각할 수 있는 예로 소개 된다.

한국의 표준화 성장은 WRC를 거치면서 성장해 왔다. 현재 운용중인 동경 116도에 6개의 추가적 방송 위성망 주파수 자원을 확보하였고, 1979년 이래 사용되었던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 25%의 보호율에 불과하던 전파천문대역이 한국이 보호를 요구했던 대역을 포함하여 약 70%의 보호대역을 확보한바

있다. 또한 IMT-2000용 주파수 추가 분배대역 합의, HAPS의 IMT-2000 지상기지국 대체수단으로 급부상, 위성망 조정절차 간소화 및 정지 위성과 비정지 위성 시스템의 공유 및 위성망 국제 등록 비용 부과 방안 협의, 해상 멀티미디어 서비스 도입 결정 등을 WRC-2000, 터키 이스탄불에서 전파 주권 확보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WRC-2003에서는 2605 ~ 2630 MHz 대역을 위성 DMB 추가 주파수로 사용함에 있어 일본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였다. WRC에서는 주파수분배표 각 주의 간소화를 위해 각 주의 삭제 및 각주로부터의 국가 이름 삭제를 권고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2.3 GHz 대 DAB를 위해 자국 이름 추가를 제안하였다. 이때 우리나라가 휴대인터넷 주파수 보호를 위하여 주파수분배표의 각주 5.393(2.3 GHz 대 DAB 관련)에 일본의 이름이 추가되는 것을 반대하여 2.3 GHz 휴대인터넷 주파수 보호하였다. WRC-2007의 주요 성과는 우리나라의 WiBro 주파수대역(2.3 ~ 2.4 GHz)를 포함한 4개 대역이 IMT(4G)대역으로 선정한 것이다. 이 역사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국내의 이동통신 기술이 세계화를 이끈 것으로 자부하고 있다. 이는 금년도에 개최된 WRC-2012에서 한국은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을 대처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용 주파수 추가 분배를 채택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3년간의 연구를 통해 '15년에 이동통신용 신규 주파수를 분배할 예정이다. ITU의 활동은 광의적으로 전파주권이지만, 국소적으로는 자국 내 선도 기술의 국제표준화 이다.



그림 3. 한국 주도 기술의 국제표준화 예

통신은 3GPP, 3GPP2, TTA, TTC, ARIB, TTA, ETSI 등 표준 제정기관과의 협력으로 표준 개발되고 있으며, ITM-2000(3G)은 ITU를 중심으로 범 세계적인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RA-2007(2007.10월)에서 WiBro가 3G 국제표준의 하나로 반영되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4G 경쟁에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교두보 확보하였다.

IMT-Advanced(4G)는 표준 제정 기구 외 타 기관에게도 기회를 주는 등

표준 과정을 개발하고, 기술 확정 후에도 새로운 기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의 이동통신 표준화는 세계를 선도한 예로서 자부 할 수 있다.

※ 2차 ITU 국제표준화 전문가 교육('12.10.30-31) ITU-R 활동전문가 위규진(WP5D 부의장) 및 김경미(SG6 부의장) 박사 발표자료 발췌

나. ITU-T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국제 표준화 회의 참석 및 활동

표준화 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표준”과 “표준화”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된다. 표준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일정한 약속으로 타의 규범이 되는 규칙, 규범 또는 기준 (광의의 사전적 의미)이며, 표준화는 표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구현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하는데 이르는 일련의 역동적 (力動的) 과정이다. 우리가 표준화를 하는데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표준화의 장점은 망 외부효과의 증진, 불확실성의 감소와 비용절감, 중복투자 방지, 값싸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등을 꼽을 수 있다. 물론 단점으로 제품의 다양성 저해, 열등 표준에의 고착 가능성, 무임승차 속성, 기술혁신둔화 및 첨단 기술채택 지연 등이 있다. 아래 그림처럼 이러한 표준화 과정의 역동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접근해야 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 하나의 표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그 표준을 사용하여 확인하는 일련의 공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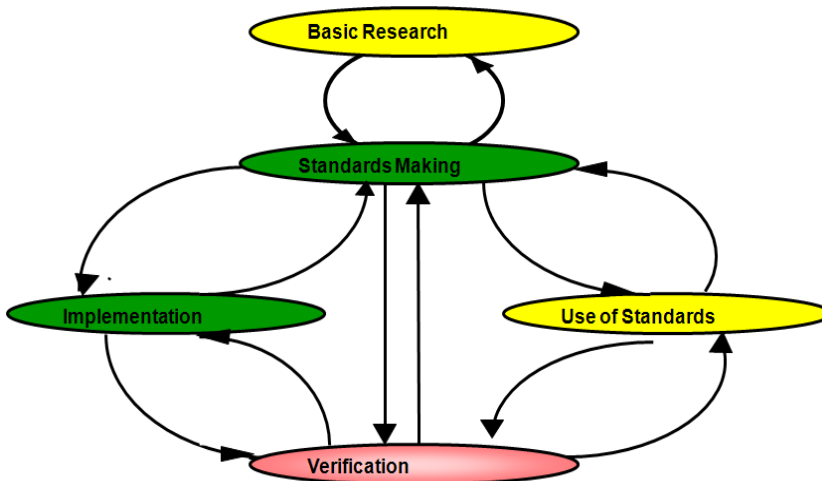


그림 4. 표준화 과정의 재조명

종전에는 표준의 분량이 적고 내용 파악이 용이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표준내용이 복잡하고 분량도 많아지고 있다. 그 원인은 기술의 발전 및 복잡화, Globalization, 이용자 요구 다양화 등이며, 표준화 활동 형태 변화로 표준 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는 내용파악이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체가 표준화 과정에서 얻어야 될 것은 표준화 자체만이 아니라 홍보효과, 기술발전 방향, 시장 움직임 등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 제품의 Life Cycle 이 길었으나, 오늘날은 기술의 발전 및 복잡화, 이용자 요구사항의 다양화로 이러한 제품자체의 생명력이 짧아졌다. 과거에는 표준 정립 후에 표준에 따라 구현하여도 상품성이 유지 되었으나, 현재에는 표준정립과 함께 제품이 출시되어야 성공하는 구도로 변화된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80%정도의 표준이 진행되면 제품이 출시된다. 이러한 표준화 진행 성향에 따라 한국도 표준화의 참가목적에 따른 History Taking 이 필요하다. 첫째, 전체회의 내용 파악을 먼저 해야 한다. 전회 회의록, 주요결정사항 및 미결사항 등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지난 회의 시 입장 및 방향등을 정립해야 한다. 둘째, 회의관련 제반 규정을 사전 검토해야 한다. 셋째, 관심 있는 주요 이슈에 관한 지난 기고서 등을 분석해 둘 필요가 있다.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해 관련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를 접촉하고 정보를 입수해 놓는 것이 목표하는 표준화에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 2차 ITU 국제표준화 전문가 교육('12.10.30-31) ITU-T 활동전문가 박기식 (WTSA 리뷰그룹 부의장)박사 발표자료 발췌

제3절 운영규정 개정(안)

ITU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설립된 한국ITU연구위원회의 운영·관리는 매년 차기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규정 등을 개정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이 집행하고 있다. 금년도 운영을 통하여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차기년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4가지 정도의 개선안을 반영하여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그 첫째가 신규 운영위원의 확대이다. 운영규정 규정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ITU의 산업계 활동을 유도하고자하는 목적이 있다. 둘째는 한국ITU연구위원회의 홍보활동과 관련된 제9조에 보도 자료 작성과 배포 시 위원장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신설하였다. 셋째는 현재 표준화 활동 전문가의 임기가 4년으로 되어 있고, 현실상 의미가 없음으로 제8조 연구위원 임기 등을 재 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또한 별표 1 과 별표 2 및 별표 3 은 한국대표단 구성 절차, 기고업무 처리절차, 회람문서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사항으로 운영규정에 포함시키는 것 보다 ITU 편람 등 활동안내서에 포함시키는 정보 성향으로 삭제할 것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가. 한국ITU연구위원회 운영위원회

동 운영규정 제4조에 산업계 참여를 독려를 위해 운영위원을 확대(15인→20인) 하고, 활동보고에 대한 보고서 발간의무를 강제화하였다. 현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비롯하여 ITU-R/T/D의 연구단장, 방통위의 관련 정책담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ITU의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활동 중인 산업계의 영향력 있는 인사영입이 시급하다. 제5조 3항의 경우 매년 위원회에서 활동결과를 종합하여 ITU 국제표준화 활동보고서 및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는 사항에 대해 발간의무를 강제조항으로 변경하여 위원회의 연구계획에 이를 포함 시키도록 문구를 조정하였다.

나. 연구단의 구성 및 임무

동 규정 제6조 1항에 연구단의 구성을 구체화 하여 연구단은 단장, 부단장 및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연구단에 소속된 연구반장 및 해당전문가로 구성 하고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또한 3개 섹터의

연구단장의 수행기관을 명시하였다. 이에 ITU-R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이 수행하는 문구를 수정하였다. 그동안 국립전파연구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한국ITU연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를 수행하면서 국립전파연구원 내부 처리절차와 혼용되는 문구를 운영규칙 내에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동규정 6조 3항에 있는 연구단장의 소관 임무 중의 예외 규정 이었던, ITU-R 관련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관련 과장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또한, 주관청이 검토해야 하는 회람문서 승인 문구를 위원회에서 의견서 검토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2-3년 전의 운영위원회는 해당 전문가 40여명이 운영·관리하면서 20여개 연구반의 운영계획 등 전반적인 표준화 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까지 겸하였다. 현재는 운영위원이 15인으로 축소되면서 예산 및 활동계획의 승인기능만 부여되면서, 3개 연구단별로 소속 연구반의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금년도 운영규정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수정하였다.

다. 연구위원의 위촉 및 해촉

동 규정 제8조에 연구위원의 임기의 재위촉 조항 및 해촉 기준을 신설하였다. 아이러니하게 한국ITU연구위원회의 임기는 4년으로 되어 있다. 아마 대부분 10여년 이상 활동하신분과 이제 막 3~4년의 임기를 채우신 분은 현 규정대로 한다면 연구위원 임기 만료로 활동종료를 해야 하는 상황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문구를 재위촉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구체화 하였다. 해촉에 관한 문구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위원회의 활동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연구단장 또는 연구반장의 제안으로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연구반 운영 시 해당 반장들이 오해를 받기도 한다. 신설한 사항은 활동 연구위원의 탈퇴요청 시, 활동 연구위원이 사전 통보 없이 연속 3회 이상 연구반 회의에 불참 시, 기타 연구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다.

다. 홍보활동 및 기타사항

동 규정 제9조에 의하여 국가대표단은 참가 후 14일 이내에 ITU 회의 참가 결과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위원들은 소속기관의

표준화활동에 대해 홍보할 성과에 대해서 한국ITU연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각 소속 기관장의 이름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해 본 위원회를 운영·감독하는 본원에서 관리하는데 문제 사항으로 지적된바 있다. 하여 동 규정에 제9조 5항에 보도자료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 후 배포되어야 하는 것을 신설하였다. 제9조 4항에도 위원회 자체행사에서 의무적으로 활동 실적으로 발표하도록 문구를 조정하였다. 또한 제9조(국가대표단 구성), 제10조(국가기고서), 제11조(회람문서)에서 인용된 별표 1, 2, 3(업무처리절차도)은 업무편람성격으로 일괄 삭제하여 향후 『ITU 연구활동 안내서』에 반영 예정이다.

〈표 3. 한국ITU연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대조표〉

| 개정 (전) | 개정 (후) | 개정의견 |
|--|--|---|
| <p>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이하 “ITU”라 한다) 및 관련 국제기구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 설치하는 「한국ITU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현 행 유 지</p> | |
| <p>제2조(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ITU 및 관련 국제기구(지역기구 포함)의 활동에 참여 및 대응 ITU 및 관련 국제기구(지역기구 포함)에 대한 주관청 활동의 지원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 <p>현 행 유 지</p> | |
| <p>제3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장은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한다.</p> <p>② 연구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p> <p>③ 위원회에는 운영위원회, ITU-R, ITU-T, ITU-D 연구단을 둔다.</p> <p>④ 연구단에는 ITU Study Group 등에 대응하는 연구반을 두며 필요시 별도의 특별 연구반을 둘 수 있다.</p> | | |
| <p>제4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의장, 연구단장, 위원장이 위촉하는 방송통신관련 전문가 등 <u>15명 이내로</u> 구성한다.</p> <p>② 운영위원회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부의장과 간사는 의장이 지명한다.</p> <p>③ 운영위원회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의 연례 운영계획의 검토 및 조정 산하 조직 신설, 폐지, 임무 조정 등 조직 관리 각 연구단별 연구 활동에 관한 지도·점검 기타 위원회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p>제4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의장, 연구단장, 위원장이 위촉하는 방송통신관련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한다.</p> <p>현 행 유 지</p> | <p>ITU의 산업계 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신규 운영위원 확대</p> |
| <p>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매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다음연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조직에 관한 사항 연구단별 활동 계획 | <p>현 행 유 지</p> | |

| | | |
|---|--|--|
| <p>3. ITU 중요 연구과제에 대한 대응방안</p> <p>4.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p> <p>5. 기타 위원회 임무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p> <p>③ 위원회는 매년 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ITU 국제표준화 활동보고서 및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p> | <p>③ 위원회는 매년 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ITU 국제표준화 활동보고서 및 연차보고서를 발간 한다.</p> | <p>위원회 활동보고에 대한 발간의무를 강제 조항으로 변경</p> |
| <p>제6조(연구단) ① 연구단은 단장, 부단장 및 간사를 두되,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p> <p>② ITU-R 연구단장은 전파자원기획과장, ITU-T 연구단장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본부장, ITU-D 연구단장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그룹장으로 한다.</p> <p>③ 연구단장은 소관 연구반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ITU-R 관련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의 관련 과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p> <p>1. 소관 연구반의 활동계획 조정</p> <p>2. 위탁연구과제 조정</p> <p>3. 소관 연구반의 국가기고서 및 국가대표단 조정</p> <p>4. ITU 회람문서 의견서 승인</p> <p>5. 기타 연구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검토 및 조정</p> | <p>제6조(연구단) ① 연구단은 단장, 부단장 및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연구단에 소속된 연구반장 및 해당전문가로 구성하고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p> <p>② ITU-R 연구단장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ITU-T 연구단장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본부장, ITU-D 연구단장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그룹장으로 한다.</p> <p>③ 연구단장은 소관 연구반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p> <p>(삭 제)</p> <p>1. 연구단 및 연구반의 활동계획 수립</p> <p>2. 위탁연구과제 조정</p> <p>3. 소관 연구반의 국가기고서 및 국가대표단 조정</p> <p>4. ITU 회람문서 의견서 검토</p> <p>5. 기타 연구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검토 및 조정</p> | <p>연구단의 구성을 구체화</p> <p>연구단 업무 수행기관을 명시</p> <p>국립전파연구원 내부 처리절차 삭제하고, 연구단의 임무를 구체화</p> |
| <p>제7조(연구반) ① 연구반은 반장, 부반장, 간사 및 연구위원인 반원으로 구성한다.</p> <p>② 반장은 연구단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하고 부반장과 간사는 반장이 지명한다.</p> <p>③ 연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ITU와 지역기구의 해당 분야 연구활동 동향 파악 및 대응</p> <p>2. 주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수행</p> <p>3. 매년 연구반 활동 계획수립</p> <p>4. 필요 시 위탁연구과제 제안</p> <p>5. 국가기고서 작성 및 국가대표단 구성</p> <p>6. ITU 회람문서 검토 및 의견서 작성</p> <p>7. 그 밖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p> | <p>현 행 유 지</p> <p>③ 연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ITU와 지역기구의 해당 분야 연구활동 동향 파악 및 대응</p> <p>2. 주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수행</p> <p>3. 매년 연구반 활동 계획수립 및 결과 보고</p> <p>4. 필요 시 위탁연구과제 제안</p> <p>5. 국가기고서 초안 작성 및 국가대표단(안) 구성</p> <p>6. ITU 회람문서 검토 및 의견서 작성</p> <p>7. 그 밖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p> | <p>연구반 임무 구체화</p> |

| | | |
|--|--|---|
| <p>제8조(연구위원 임기 등) ① 당연직을 제외한 연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u>한다</u>.</p> <p>② 위원회의 활동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연구단장 또는 연구반장의 제안으로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 <p>제8조(연구위원 임기 등) ① 당연직을 제외한 연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 위촉할 수 있다.</p> <p>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위원에 대해 연구단장 또는 연구반장의 제안으로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은 예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활동 연구위원의 탈퇴요청 시 2. 활동 연구위원이 사전 통보 없이 연속 4회 이상 연구반 회의에 불참 시 3. 기타 연구반 운영에 필요한 경우 | <p>재위촉 조항 추가</p> <p>해촉 기준을 추가하여, 해촉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p> |
| <p>제9조(국가대표단 구성) ① 연구반장은 별표1과 같이 ITU회의 참가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 국가대표단 구성안을 마련하여 해당 연구단장의 확인 후 <u>전파자원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u>국가대표단은 전파자원기획과장이</u>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다만, ITU-T 및 ITU-D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p>③ 국가대표단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수석대표를 지명할 수 있으며, 수석대표는 국가대표단을 지휘·감독한다.</p> <p>④ 대표단은 회의 참가 후 14일 이내에 ITU회의 참가결과 보고서를 <u>해당 연구단장과 전파자원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발표회 등을 통하여 활동내용 및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 <p>제9조(국가대표단 구성 및 활동결과) ① 연구반장은 ITU회의 참가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 국가대표단 구성안을 마련하여 해당 연구단장의 확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한다.</p> <p>② 국가대표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다만, ITU-T 및 ITU-D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현 행 유 지</p> <p>④ 대표단은 회의 참가 후 14일 이내에 ITU회의 참가결과 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발표회 등을 통하여 발표한다.</p> <p>⑤ 보도자료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 후 배포되어야 한다.</p> | <p>업무편람과 같은 별표1 삭제하고, 국가대표단 구성 및 활동결과에 대한 제출처를 명확하게 정의</p> <p>국립전파연구원 고유 업무와 혼용된 문구 삭제</p> <p>의무사항으로 한국ITU연구위원회 홍보활동 강화</p> |
| <p>제10조(국가기고서) ① <u>연구반장은 별표2와 같이</u> 국가기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p> <p>② 연구반장은 사전협의를 완료된 국가기고서와 심의의견서를 ITU 제출 마감 14일 이전에 연구단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ITU-R 부문은 방송통신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 <p>제10조(국가기고서) ① 연구반장은 국가기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현 행 유 지</p> | <p>업무편람과 같은 별표2 삭제</p> |

[illegible]

| | | |
|---|------------------|--|
| <div><p>[별표2]</p><p>국가 기고 업무 절차도</p></div> | <div>(삭 제)</div> | <div>한국ITU연구위원회 활동안내 서에 반영</div> |
| <div><p>[별표3]</p><p>회람문서 처리 절차도</p></div> | <div>(삭 제)</div> | <div>한국ITU연구위원회 활동안내 서에 반영</div> |

제3장 전파통신총회(RA-12) 대응 결과

제1절 회의개요

전파통신총회(RA-12)는 WRC와 더불어 3~4년마다 개최되는 ITU-R의 상위 회의이다. 전파관리(SG1) 등 총 6개의 연구반을 대상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연구회기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ITU-R 차기 회기의 작업방법 등 여러 연구결의 제·개정 및 신설을 하였다. 금년도 회의는 '12년 1월 16일 부터 20일 까지 스위스 제네바 국제회의장(CICG)에서 개최되었으며, 102개국 주관청 및 국제기구 등 477명이 참석하였다.

RA-12 참석자 중 최고 연장자인 Dr.베어드(미국)가 개회를 선언하면서 개최된 금년도 RA의 의장은 뉴질랜드의 Dr. A. Jamieson 이 수임하였다. RA-12 의장은 지난 2007-2012년 회기 연구기간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다음 회기를 준비하는 금번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ITU 사무총장(Dr. 뚜레)도 RA-07 이후, 초고속 이동통신, 디지털 브로드캐스팅, 융합 관련(E-learning, -Government)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여 300여건의 권고들을 제·개정하며 ICT 부문에 큰 기여하였음을 강조하고 향후에도 전파통신 부문의 상호호환성 확보, 혁신적인 활동으로 글로벌 ICT에 기여 할 것을 기대 하였다. RA-12 회의는 총 5개의 위원회(Committee)로 나누었으며, 결의 결정, SG연구반 조직개편과 관련 Com 4 및 Com 5 에 집중되어 활동하였다.

1. 회의조직 및 의장단

- (Com 1 조정위원회) Committee의 의장·부의장으로 구성하여, RA-12 회의진행 등 제반사항을 조정
- (Com 2 예산조정) 조직과 참가자에 지공될 편의사항 등을 결정하고, 회의 총지출에 대한 심사·승인하여 회의 총회(Plenary)에 보고

- (Com 3 편집위원회) 총회에서 승인된 결의 및 결정 문서를 편집
- (Com 4 R-SGs 조직 및 작업계획) 연구반의 작업프로그램, 구조의 작업범위(ToR), 과제(Question) 목록, ITU-R 결의(Resolution) 4, 5, 6, 8, 11, 17, 22, 23, 25, 28, 37, 40, 47, 50, 53, 54, 55, 56 및 57의 제·개정 작업 수행
- (Com 5 R-SGs, RA 작업방법 및 결의채택) ITU의 헌장 및 협약에 따라 전파통신총회와 각 SGs에 작업방법을 채택하고, 주관국의 기고문에 따른 결의 ITU-R 1, 2, 6, 7, 9, 12, 15, 19, 33, 34, 35, 36, 38, 43, 45, 48 and 52 제·개정 작업 수행

표 4. 전파통신총회(RA-12)의 회의구성

| 총 회 구성(Plenary) | | | | |
|---------------------|-------------------|----------------|-----------------------------|----------------------|
| COM 1 | COM 2 | COM 3 | COM 4 | COM 5 |
| 의장단 구성 및 회의조정 | RA소요예산 심사 및 보고 | 결의, 결정 문서편집 | SG 연구반 조직개편 및 연구과제 할당 | ITU-R 작업방법과 절차 채택 |

- (의장단) 주관청 수석대표회의에서 제안된 각 위원회의 의장단을 전파통신총회 의장이 발표하고 전체회의에서 승인

표 5. RA-12 5개 위원회별 의장단 구성

| Committee 1: Assembly | |
|----------------------------------|--|
| 의 장 | Dr. A. Jamieson (New Zealand) |
| 부위원장 | Mr. A. Zourmba (Cameroon) |
| | Mrs. L. Jeanty (Netherlands) |
| 사무국 | Mr. F. Rancy (Director, Radiocommunication Bureau) |
| | Mr. C. Langtry (ITU, Radiocommunication Bureau) |
| Committee 2: Budget control | |
| 의 장 | Mr. N.A. Bin Hammad (UAE) |
| 부위원장 | - |
| 사무국 | Mr. T. Perewostchikow (ITU, General Secretariat) |
| | Mr. W. Ijeh (ITU, Radiocommunication Bureau) |
| Committee 3: Editorial Committee | |

| | |
|--|---|
| 의 장 | Mrs. M.-T. Alajouanine (France) |
| 부위원장 | - |
| 사무국 | Mr. E. Dalhen (ITU, Secretary General's office) |
| Committee 4: Structure and work programme of the Study Groups | |
| 의 장 | Dr. B. Arbesser-Rastburg (ESA) |
| 부위원장 | Mr. H. Mazar (Israel) (or Committee 5) |
| 사무국 | Mr. S. Buonomo (ITU, Radiocommunication Bureau) |
| Committee 5: Working methods of the Study Groups | |
| 의 장 | Dr. R. Haines (United States) |
| 부위원장 | Mr. H. Mazar (Israel) (or Committee 4) |
| 사무국 | Mr. N. Venkatesh (ITU, Radiocommunication Bureau) |

2. 회의일정

표 6. RA-12 일정별 회의체 구성

| 구 분 | 08:00 ~ 10:15 | 10:45 ~ 12:00 | 14:00 ~ 15:15 | 15:45 ~ 17:00 | 17:30 ~ |
|---------|---------------|---------------|---------------|---------------|---------|
| 1.15(일) | | | | HOD(1) | |
| 1.16(월) | HOD(2) | 총회(1), 개회 | COM5 | COM4 | COM4,5 |
| 1.17(화) | COM4,5 | COM4,5 | COM4,5 | COM4,5 | COM4,5 |
| 1.18(수) | COM4,5 | COM4,5 | COM5, COM2 | 총회(2) | HOD(3) |
| 1.19(목) | COM5 | | 총회(3) | | 총회(4) |
| 1.20(금) | 총회(5) | | 총회(6), 폐회 | | |

※ COM4 : 결의 4~6, 8, 11, 17, 22, 23, 25, 28, 37, 40, 47, 50, 53~57 및 관련 권고·과제

※ COM5 : 결의 1, 2, 6, 7, 9, 12, 15, 19, 33~36, 38, 43, 45, 48, 52 및 관련 권고·과제

제2절 총회의 주요 논의사항

1. ITU-R 연구반 작업방법

총회에서는 ITU-R 연구반 활동 작업방법 개선 등에 관련된 결의 1(RA, SG 및 RAG의 작업방법) 등 10여개의 결의를 개정하였다. Res.1(RA, SG 및 RAG에 작업방법 개선)과 관련된 결의 Res.4(전파통신 연구반 구조) 및 Res.45(AAP) 등의 개정·폐지에 따라 현행 화를 추진한 결의1의 경우 전파통신 분야의 표준화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결의이다. 표준화 활동의 기본인 기고(Contribution)제출(Section 8.3)에 관하여 각 국가가 포지션을

정할 수 있도록 바로 웹에 등록하여 공개하고, 사무국의 재편집은 그 이후에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이 수정되었다. 권고의 승인절차도 2단계 승인 절차(Normal Process)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유럽제안을 받아들여 1단계 승인 절차인 동시채택승인절차(PSAA)를 기본으로 하였다. 회람을 통한 검토기간도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Section 10.3.3)되었으며, CEPT에서 제안한 권고의 동시채택절차(AAP)는 전파통신 부분에서 그동안 사용한 예가 없고, 대부분의 나라가 찬성하여 삭제되었다. ITU-R 문서배포에 관한 결의 19는 전권위원회(PP-10)에서의 ITU 출판물의 온라인 무료이용에 대한 결정(Decision 12)을 참조사항으로 포함하여 개정되었다. WRC 의제 연구에 대한 CPM(Conference Preparatory Meeting)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개정된 결의 2의 경우 미국의 제안을 반영하여 매년 회원국 회람문서를 통해 안내하던 CPM보고서의 작성 방법을 상시 참조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WRC 준비 일환으로 규제/절차 관련 문제를 검토하는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의 운영상 필요한 근거마련을 위하여 결의 38을 개정하였다. 통상 SC는 CPM 회의에서 부여받은 규제/절차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필요 시 산하 작업반(Working Party)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추가하여 개정하게 되었다. SC의 역할 강화를 위해 미국은 CPM 회의에서 SC 의장 임명과 각 연구반에서 마련한 WRC 의제별 조치방안을 최종 확정하도록 제안하였으나 대부분 반대하였다. SC 의장 선임은 RA 소관이며, WRC 의제별 조치방안은 CPM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사항이다.

2. CRS의 이용과 실행

금번 회의에서 CRS(Cognitive Radio System; 인지무선통신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ITU-R 차원의 연구와 권고개발(표준화)의 근거 마련을 위한 사항에 대해 러시아는 WRC-12에서 동일 의제가 논의될 예정임을 들어 RA-12에서 본 결의를 추진하지 말 것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APT, CEPT, CITEL 등이 CRS의 도입 및 이용을 위한 연구는 규제(WRC 업무)를 전제로 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러시아는 이동위성, 수동업무, 무선 측위 등 기존 업무(서비스)의 보호(간섭방지)를 위해 CRS의 연구범위 제한을

주장하였으나, CRS가 전파통신 분야의 일반 기술임을 지적함에 따라 CRS의 적용 업무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 되었다. 따라서, CRS를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 CRS의 적용에 따른 전파통신 서비스의 성능 등에 대한 지속적 연구, 관련 연구보고서 및 권고개발 등을 포함하는 결의를 제정하였다.

3. ENG 이용 및 주파수 조화 가능성 연구

ENG (Electronic News Gathering, 전자뉴스수집)는 소형 전자 카메라 및 마이크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 무선회선을 통해 보도실이나 휴대형 녹화기로 전송(ITU-R 보고서 BT.2069)하는 것을 말한다. 금년 총회에서 CITEL(미국)은 각 주관청에 국가 ENG 주파수 계획 시 이용 조화에 노력할 것과 타 주관청이 참조할 수 있도록 ITU에 ENG 주파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실 데이터베이스는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각 국의 주파수분배 현황을 링크로 ITU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도록 협의하고 신규결의로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관련 결의로 만들면 국제적으로 ENG 장비의 상호호환성 및 주파수 조화 연구를 위한 ITU-R 차원에서의 연구 근거 마련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ENG가 이용되고 있는 고정, 이동, 방송업무용 주파수 대역에서의 공통 주파수 발굴 방안에 대한 연구, 관련 연구보고서 및 권고개발 등을 결의하여 제정하였다.

4. 적합성 시험 및 전파통신 장비·시스템의 상호호환성

RCC(Regional Commonwealth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s) 제안으로 전파통신 장비에 대한 적합성 및 상호호환성 시험에 대해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개도국의 지원을 위해 ITU-T/D와 협력을 유도하고, ITU-T/D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되었다. 사실 많은 나라들은 적합성 및 상호호환성에 관한 결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개도국 내 관련 장비의 신뢰성(안정성) 확보·제공을 위한 ITU-R 역할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신규결의로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많은 회원국·섹터멤버들은 관련 시험에 대한 ITU-R의 권한 부재,

전문성·자원 결여 및 전파통신 장비·주파수의 다양성 등을 이유로 RCC가 제안한 결의(안)의 범위 수정을 하였다. 내용상 ITU-R은 기존 권한(임무) 내에서 적합성 및 상호호환성 시험에 대해 ①ITU-T 및 ITU-D와 협력하고, ②ITU-T와 ITU-D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정보를 제공토록 문구를 수정하였다. 또한 BR 국장은 본 이슈에 대한 진행 보고서를 준비하고, 회원국·섹터 멤버들은 본 결의 이행에 기여할 것을 권유하도록 하였다.

제3절 총회 결과

1. 연구반별 연구범위 및 과제

전파통신 연구반의 작업 프로그램과 연구과제는 금년도 총회에서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전파통신 연구반이 핵심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그 기준을 제공하고자 '93년 제정 이래 6번째 개정되었다. 연구과제의 우선순위와 긴급성을 식별하는 분류기준을 제공하며 전파통신 분야 6개 연구반에 배정된 연구과제(Question) 목록을 Annex로 제공하고 있다.

표 7. 연구반별 Question 제·개정 및 폐지 승인 결과

| SG1(전파관리) | SG3(전파전파) | SG4(위성업무) | SG5(고정업무) | SG6(방송업무) | SG7(과학업무) |
|-----------|-----------|-----------|-----------|-----------|-----------|
| 12 | 23 | 55 | 40 | 66 | 36 |

가. SG1(전파관리)는 스펙트럼 관리 원칙 및 기술, 공유에 관한 일반 원칙, 스펙트럼 모니터링, 스펙트럼 활용을 위한 장기 전략, 국가 스펙트럼 관리에 대한 경제적 접근법, 통신 개발 부문의 협력에 의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동화된 기술과 지원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다.

나. SG3(전파전파)는 이온화 및 비 이온화 매질에서의 전파 전파 및 전파통신 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 잡음의 특성을 연구를 업무범위로 하고 있다.

- 다. SG4(위성업무)는 고정 위성 업무, 이동 위성 업무, 방송 위성 업무 및 무선측위 위성 업무를 업무범위로 하고 있다.
- 라. SG5(지상업무)는 고정, 이동, 무선측위, 아마추어 및 아마추어-위성 업무용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업무범위로 하고 있다.
- 마. SG6(방송업무)는 주로 일반 대중에게로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 음성, 멀티 미디어, 데이터 업무를 포함한 전파 방송을 일컫는다. 방송은 광범위한 수신자들을 상대로 한 지점에서 모든 곳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리턴 채널 용량이 요구되는 경우(예: 접근 제어, 양방향 등), 방송은 통상적으로 대중에게는 높은 용량의 정보를 전달하고 업무 제공자에게는 낮은 용량의 리턴 링크가 허용되는 비대칭적인 분배 인프라 구조를 사용한다. 여기에는 스튜디오 간의 전송 회선, 정보 수집 회선(ENG, SNG 등), 전달 노드에 대한 1차 분배,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2차 분배와 함께 프로그램(영상, 음성, 멀티미디어, 데이터 등)의 제작 및 분배가 포함된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전파통신 방송이 프로그램의 제작부터 일반 대중으로의 전달까지 광범위하다는 인식 하에 연구반(SG)은 업무의 전체적인 품질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국제 교환을 포함한, 제작과 전파통신과 관련된 분야들을 연구한다.
- 바. SG7(과학업무)는 위성간의 서비스 사용을 포함한 우주 운용, 우주 연구, 지구탐사 및 기상 시스템 전파천문 및 레이더 천문, 위성기술 응용 분야 및 표준주파수, time-signal 서비스의 조정 업무 등을 수행한다.

2. ITU-R 결의 제·개정 결과

금년 총회에서 6개 연구반 관련결의 35개를 대상으로 26개의 결의가 개정되었으며, 권고안에 대한 대체승인절차(AAP)의 적용에 관련한 1개의 결의가 폐지되었다. 또한, CRS의 이용과 실행에 관한 연구 등 6개의 신규결의가 제정되었다.

표 8. ITU-R 결의(Resolutions) 제·개정 결과

| 번호 | 결의번호 | 제 목 | 결 과 |
|----|-----------|--|------|
| 1 | ITU-R1-5 | RA, RSG, RAG 작업방법 | 개 정 |
| 2 | ITU-R2-5 | CPM회의 | 개 정 |
| 3 | ITU-R4-5 | SG의 구조 | 개 정 |
| 4 | ITU-R5-5 | 전파통신 연구반 작업프로그램과 연구과제 | 개 정 |
| 5 | ITU-R6-1 | ITU-T 표준화 부문과의 연락 및 협조 | 현행유지 |
| 6 | ITU-R7-1 | ITU-D와의 협력 및 접촉을 포함한 전기통신 개발 | 개 정 |
| 7 | ITU-R8-1 | 개발도상국의 전파전파 연구와 측정 | 현행유지 |
| 8 | ITU-R9-3 | ISO/IEC 등 다른 기구와의 연락 및 협력 | 개 정 |
| 9 | ITU-R11-4 | 개발도상국을 위한 스펙트럼관리시스템의 추가 개선 | 현행유지 |
| 10 | ITU-R12-1 | 전파통신 업무 개발을 위한 핸드북과 특수 발간물 | 현행유지 |
| 11 | ITU-R15-4 | SG, CCV 및 RAG 의장과 부의장 임명 및 최대임기 | 개 정 |
| 12 | ITU-R17-3 | 기존 네트워크와 국제이동통신(IMT-2000 과 IMT Advanced)의 통합 | 개 정 |
| 13 | ITU-R19-2 | ITU-R 문서배포 | 개 정 |
| 14 | ITU-R22-2 | 스펙트럼관리를 위한 업무개선 | 개 정 |
| 15 | ITU-R23-1 | 국제 감시시스템의 세계로 확장 | 개 정 |
| 16 | ITU-R25-2 | 전파전달특성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수치데이터 | 개 정 |
| 17 | ITU-R28-1 | 표준주파수 및 시보 발사 | 개 정 |
| 18 | ITU-R33-2 | 용어 text의 준비 | 개 정 |
| 19 | ITU-R34-2 | 용어의 선택과 정의준비 지침 | 개 정 |
| 20 | ITU-R35-2 | 용어 및 정의 등 어휘작업 | 개 정 |
| 21 | ITU-R36-2 | 어휘의 조정 | 개 정 |
| 22 | ITU-R37 | 업무 기획 및 시스템 설계를 위한 전파전파 연구 | 현행유지 |
| 23 | ITU-R38-3 | 규제/절차적 문제연구 | 개 정 |
| 24 | ITU-R40-2 | 표고 및 표면 특성에 대한 전 세계적 데이터베이스 | 개 정 |

| | | | |
|----|-----------|--|------|
| 25 | ITU-R43 | 준회원의 권리 | 현행유지 |
| 26 | ITU-R45-1 | 권고안에 대한 대체승인절차(AAP)의 적용 | 폐지 |
| 27 | ITU-R47-1 | IMT-2000 위성용 무선전송기술제출 | 개 정 |
| 28 | ITU-R48-1 | 전파통신연구반의 지역기구 역할 강화 | 현행유지 |
| 29 | ITU-R50-1 | IMT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파통신 부문의 역할 | 개 정 |
| 30 | ITU-R52 | RA간 활동에 대한 RAG의 권한 | 현행유지 |
| 31 | ITU-R53 | 재난 대응 및 구조에서의 전파통신의 사용 | 개 정 |
| 32 | ITU-R54 | 근거리 전파통신 장치(SRD)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 | 개 정 |
| 33 | ITU-R55 | 재난예측, 감지, 경감 및 구조에 대한 ITU 연구 | 개 정 |
| 34 | ITU-R56 | 국제 이동전기통신의 명칭 | 개 정 |
| 35 | ITU-R57 | IMT-Advanced의 개발 과정을 위한 원칙 | 개 정 |
| 36 | ITU-R 58 | CRS의 이용과 실행에 관한 연구 | 제 정 |
| 37 | ITU-R 59 | ENG ¹⁾ 이용 및 주파수 조화 가능성 연구 | 제 정 |
| 38 | ITU-R 60 | 무선통신 이용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절감 | 제 정 |
| 39 | ITU-R 61 | WSIS ²⁾ 결과 이행 시 ITU-R의 기여 | 제 정 |
| 40 | ITU-R 62 | ITU-R 권고와의 적합성 시험 및 전파통신 장비시스템의 상호호환성 시험 관련 연구 | 제 정 |
| 41 | ITU-R 63 | 아카데미(학계)의 ITU-R회원가입 | 제 정 |

3. 표준 승인

ITU-R SG5의 WP5D에서 IMT-Advanced 무선접속 권고안을 완성('11.10월)하고 SG5에서 채택('11.11월)하였으나, 회원국 회람 등의 행정절차에 3~4개월 소요되어 기간단축을 위해 RA-12에 직접 상정하였다. WP5D 회의('11.10월) 및 SG5 회의('11.11월)에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유럽 등 이동통신관련 주요 회원국이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중국은 TDD(시분할방식)만을 표준기술로 제안한 바 있으나, SG5 회의에서 FDD(주파수분할방식)와 TDD를 모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어, 금번 전파통신총회에서는 특별한 반대 없이 승인되었다.

1) ENG (Electronic News Gathering, 전자뉴스수집): 소형 전자 카메라 및 마이크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촬영하여 무선회선을 통해 보도실이나 휴대형 녹화기로 전송하는 것(ITU-R 보고서 BT.2069). 결의 954에서 ENG는 무선 마이크, 무선 야외 제작 및 방송 등을 위한 방송 보조 장비를 통칭함

2) WSIS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정보사회 세계정상 회의) : 세계 공통의 정보사회의 효과적인 성장과 사회변화에 대한 이해를 마련하기 위한 세계 정상 회의로 ITU가 주관 (1차-2003.12, 스위스 제네바, 2차-2005.11, 튀니지)

4. 연구반별 의장단

금년도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연구반별 의장단 선임 문제였다. RA-12 기간 내 아·태지역 후보조정에 대한 APT 회의를 2차례 개최하였으며, 의장은 한국(위규진 박사)이 수임하였다. 한국은 전파통신 분야 총 73개 의장단석 중 5석³⁾에 진출된 상태로 타 지역 국가보다 많은 부의장 수를 보유한 나라 중에 하나이다. PP 결의 166에 따라 적정한 부의장수를 지역안배를 통하여 임명하려다 보니, 나라별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다. ITU-R Res15-4 Annex2에 따라 각 나라는 의장단 선출 시 지식과 경험, 관련된 연구반의 참여 연속성, 관리능력, 가용도 등에 대한 선별 기준에 따른 후보를 등록하였다. 이번 의장선 선임은 BR에서 제시한 의장단 선거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APT내에서 조정을 하였는데, APT 내에 관료직 성과주의 문화 때문인지 조정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6개 지역기구별 의장단 조정 반영 결과 아프리카계의 개발도상국이 대거 부의장단에 진출하였으며,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부의장 수가 증가하는 이변이 생겨났다. 한국은 ITU-R의장단에 4명의 부의장(CPM, RAG, SG6, SG7)을 배출하였다. 연구반별 의장 수임상황을 살펴보면, SG1(러시아), SG3(네덜란드), SG4(미국), SG5(일본), SG6(독일), SG7(프랑스), CCV(레바논), SC(이란), RAG(나이지리아) 등이 맡았다. 부의장수는 대부분이 지역안배를 통하여 조정하였으나, 1지역에 2명씩 배정하여 SG6의 경우 최고 12명까지 선임되었다.

< 의장단 선거 가이드라인(안) >

(기본원칙) 각 연구반에서 지역별 1명의 의장단 배정을 원칙으로 함

(예외규정) 現의장단들의 연임에 대해서는 지역별 2명까지 허용

(참고사항) 의장단 후보 경합 시 참여 실적에 따라 우선권 부여

3) R분야 의장단석 현황 : SG(49석/6개 SG), RAG(6석), CPM(5석), SC(6석), CCV(7석)

제4장 세계전기통신 표준화총회(WTSA-12) 대응 결과

제1절 회의개요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12)는 ITU-T의 작업방법과 절차 및 차기 연구활동('13~'15), 의장단 선출, 결의 및 권고 제·개정 등의 논의를 위해 3~4년마다 개최되는 ITU-T의 상위 회의이다. 금년도 회의는 '12년 11월 20일부터 29일 까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World Trade Center 에서 개최되었으며, 100여 개국 및 민간 회원사 등 800여명이 참석하였다. 개최국인 아랍에미레이트 Mr. H.E Mohamed Al Ghaim(UAE 통신 규제 청장)의 진행으로 시작한 금년도 총회는 총 5개의 위원회(Committee)로 나누어 운영되었으며, 한국이 예산 위원회(COM 2)의 의장(위규진 박사) 및 ITU-T 작업방법 위원회(COM 3)의 부의장(이재섭 박사)을 맡았다.

표 9. WTSA-12 진행 구조 조정 및 의장단 선임

| Plenary | | | | |
|--------------------------------|----------------------|-------------------------------|------------------------------|-----------------------------|
| 의장 : Mr Mohammad Gheyath (UAE) | | | | |
| 부의장 : 6개 지역 대표 | | | | |
| Committee 1 | Committee 2 | Committee 3 | Committee 4 | Committee 5 |
| 운영위원회 | 예산 위원회 | ITU-T 작업방법 | 프로그램 및 조직 | 편집 위원회 |
| UAE(개최국) | 의장 : 위규진 (한국) | 의장 : Mr Trowbridge (미국) | 의장 : Mr.Yoichi Maeda (일본) | 의장 : Ms Alajouanine(프랑스) |
| PL, Com의 의장, 부의장, TSB | 부의장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 부의장 : 한국(이재섭), 캐나다, 바레인 | 부의장 : 이탈리아, 중국, 모로코 | 수단, 스페인, 러시아, 영국, 중국 |
| | | WG3A : 프랑스 WG3B : 캐나다 | WG4A : 이탈리아 WG4B : 가 나 | |

제2절 총회의 주요 논의사항

1. ITU-T 연구반 작업방법

전기통신표준화 부문에 속한 10개 연구반의 작업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은 결의 1(ITU-T 절차에 관한 규정) 등 3개 및 권고 A.1(ITU-T 연구반 작업방법) 등 12개에 수록되어 있다. 금년도 총회에서는 17개 국가 이상 및 6개 지역기구의 제안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결의 1에 따라 앞으로는 TSB 국장이 WTSA 권고 편집권이 부여되었으며, WTSA에 제출되는 기고서는 개최 1달 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모든 기고서는 14일전에 마감된다. 또한 추가적으로 ITU-T 권고의 사용이 자유롭게 되었으며, 공개사용 원칙을 규정하면서 IPR을 고려할 것을 명시화 했다. 일반 연구반에 제출할 기고서 기한은 10일에서 12일로 변경 되었다. 연구반 회의 진행 시 발생 되는 TD 문서의 웹 게시 기한도 일반적으로 2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ITU-T와 포럼/컨소시엄 간의 교류 절차(권고 A.4)의 경우는 효과적인 표준화 소통 과정을 통해 표준화 작업의 중복성 배제, 표준화 그룹 간의 상호 연관성 및 의존도 이해, 상호 관심사 교환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되었다. ITU-T 포커스 그룹(권고 A.7 관련)의 경우 CEPT는 표준화를 목적으로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것으로 재정 지원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APT나 아랍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정 원칙 관련 자발적 후원 원칙을 견지하되, 장애인 및 개도국 대표의 참여촉진을 위한 예외적 재정지원을 허용하였다. 이외에 미팅 수단 관련 장애인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ITU-T 연구반이 제안한 Question 구조에 대해 폐지, 수정, 이관 등의 작업등이 이루어 졌으며, 연구반별 작업할당 및 작업방법 등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다.

가. 클라우드 보안 관련 연구 작업범위 할당

미래네트워크 연구반(SG 13)과 정보보호연구반(SG 17)이 적절한 작업 영역을 찾아 그 논의 결과를 '13년 6월 TSAG 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TSAG이 합의로 이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현재 기반을 두어 작업을 수행하고, 협력 자체에 대한 TSAG의 최종 결정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나. 이슈별 선도 그룹의 결정

재해 계통 시스템 및 망관리 분야(Network Resilience and Recovery) 분야는 서비스제공 및 통신운용관리 연구반(SG2)에서 진행하기로 하였고, 사물지능통신(M2M)과 관련 된 어플리케이션에 한정하여 신호방식, 프로토콜 및 시험면제 연구반(SG11)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음성을 이용한 자동차 통신 및 Driver distraction 기술은 차세대 통신망의 성능 및 품질 연구반(SG12)에 부여되었다. 클라우드 컴퓨팅관련해서는 미래네트워크 연구반(SG13)에서하기로 하고 스마트 그리드는 광전송망 및 접속망을 연구하는 연구반(SG15)에서 리드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비쿼터스 및 IoT(Internet of Things applications), ITS, IPTV 등은 멀티미디어 코딩, 시스템 및 응용 연구반(SG16)에서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 연구반 구조조정

금년도 총회의 최종 결정된 사항은 기존 연구반 10개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란이 제안한 보안관련 연구과제 신설 및 유럽이 제안한 연구반별 관련 연구과제의 삭제 및 통합건 대부분이 채택되지 못하였다. 다만, SG 9/16, SG 13/11, SG 2/3 연구반 별 협력을 위한 “연구반 collocation”이 채택되었다.

라. 전자적 작업 방법의 강화

ITU-T의 전자적 작업방법(Electronic Working Method, EWM) 강화 결의에 대해 개도국의 표준화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앞으로 전자적 작업방식은 ITU-T회의, 워크숍, 교육에 활용하고, 네트워크의 속도 등 제반시설의 이용이 용이치 않은 개도국, 작은 섬나라, 육지로 둘러쌓인 나라, 경제가 불안한 나라 등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ITU-T 원격참석에 필요한 단순화된 설비와 가이드라인의 제공 그리고 인터넷 사용료 또는 해당국가에서 전화사용비용 등 참석자의 비용을 TSB가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공유 확대를 위해

ITU-T 연구반의 모든 활동, 진행상태, 연구, 보고서를 ITU-T 웹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2. 개도국과 선진국의 표준화격차 해소

아태지역(APT), 미주(CITEL), 러시아 연방(RCC), 아랍, 아프리카 등 지역에서 다양한 개정안을 제안하였고, 아랍과 아프리카에서는 기존 결의 17과 59를 결의44에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되었다. 동 결의 안에는 지역사무소에 관련 부분과 실행계획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에서의 표준화활동을 촉진 및 조율하기 위한 활동수행, ITU-T 연구반 지역그룹의 활동조직 및 조율과 지원, 지역표준화기구의 설립과 관리를 위한 지역전기통신기구에 지원제공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사회에 ICT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패널 설립을 권유하도록 결의 본문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는 본 주제와 관련, "ITU-T에 있어 표준화격차 해소" (C59, add.4)를 기고서로 제출하였으며, 표준화격차해소(BSG) 프로그램의 이행단계에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항목 6가지를 제안하고 표준화국장이 향후 BSG 활동의 이행단계에서 고려할 것을 제안하여 총회에서 최종 승인되었다.

3. 사이버 보안

새로운 사이버 공격에 따른 영향에 대해 기존 권고를 평가하고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정보공유 및 국제기구와 지역기구 사이의 지속적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관련 결의 50에 대해 미주(CITEL), 유럽(CEPT), 러시아, 한국, 아랍 지역으로 부터의 의견을 받아 개정되었다. 주요 논쟁 사항은 러시아가 제안한 X 시리즈 사이버 보안 관련 Supplement 15⁴⁾에 기반을 둔 "국가 IP 기반 사이버보안 센터"에 관한 내용으로, 연구반 17은 PP 130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슈를 계속 작업키로 한다"라는 문구로 합의하여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개도국을 위한 국가 IP 기반 보안 센터"라는 문구를 결의 50 여러 곳에 넣는 러시아 제안을 UAE, 수단, 이란 등이 지지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이 문구의

4) Supplement 15는 권고 X.800~X.849 에 속한 부속서로 IP 프로토콜을 이용한 IP 기반 네트워크에서 개도국을 위한 국가 IP 기반 네트워크 보안 센터 신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결의 사용을 특정 Supplement 만 넣는 것은 부당함을 지적해 타협안이 마련되었다. 브라질은 개도국에 대한 국가적 컴퓨터 침해사고 대응팀(CIRT) 설치의 장려(결의 58)에 설립지원에 대한 문구를 넣고 싶어 했으나, 미국은 “국가 보안 센터”가 포함된 결과는 ITU-T Supplement 15임을 내세워 결의 58에서 이의 인용에 반대하였고 일본, 영국은 미국 입장 지지하였다. 논의결과 noting에 “개도국을 위한 국가 CERT 부문에서 연구반 17의 작업”이라는 문구를 넣는데 대해 합의 후 개정 결의를 승인하였다. 한국은 결의 50에 클라우드 보안,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을 위한 신규 보안 이슈에 대한 권고를 개발할 것을 결의에 포함시키고, 글로벌 정보통신 환경에서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 국가 간에 조정된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ITU-T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과 컴퓨터 침해 대응조직 간 사이버 정보교환을 촉진하게 하는 X.1500 권고를 활용해야 한다는 사항을 제안하여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4. 인터넷 IP 트래픽 등의 제어기술(MPLS⁵⁾) 표준

인터넷이 일반 전기통신망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난 뒤 '08년도부터 인터넷 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IETF⁶⁾와 전기통신망을 담당하고 있는 ITU-T SG15(광전송 및 접속망)가 협력그룹(JWG)을 통한 MPLS에 대한 표준개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MPLS 관련 장비 및 서비스 등의 운용관리 부분의 기반 솔루션의 방법이 충돌하면서 표준화 이해 당사자 국가의 기술 적용 및 장비 준비여부에 따른 나라별 입장이 이원화되었고, APT WTSA-12 대응준비회의에서 이에 대한 공동의견을 준비하여 대응하였다. 미국, 영국, 이스라엘, 핀란드 등은 자국 내 기술네트워크 솔루션을 세계적으로 이미 선점하여 대부분의 인터넷 전송망 시장을 장악하면서 IETF 기반의 MPLS-TP(G.8113.2)의 표준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표준은 Toolkit 중심으로 고쳤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 및 기존 전송망 검증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단점이 있다. 금년도 총회에서 후발주자인 중국, 일본, 한국, 이탈리아, 시리아 등은 ITU-T의 전통적인 전송망의 체계에 MPLS-TP(G.8113.1)의 표준을

5)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 멀티 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 인터넷의 백본망 등에서의 대량의 트래픽 처리를 고속으로 처리 및 관리하기 위한 기술

6)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인터넷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인터넷 표준규격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 IAB(Internet Architecture Board)의 조사위원회

개발하여 시장점유 시도하여 성공하였다. 이번 표준은 전략적으로 중국이 “MPLS-TP 표준화 촉진과 관련 권고안(G.8113.1) 승인을 촉구”하는 APT 공동(안)을 만들었고, 한·중·일이 공조하여 복수표준으로 성공시킨 좋은 사례로 꼽을 수 있다.

5.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DN)의 신규결의 제정

통신망 사업자를 중심으로 폭넓은 관심을 받고 있고, 인터넷 기반인 통신 네트워크에 트래픽 폭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 자체를 네트워크에 저장하여 유통하는 “스마트 인터넷” 실현을 위해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DN) 표준화를 촉구하는 결의이다. SDN은 ITU-T SG13(미래네트워크)에서 한국이 주도하여 관련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결의안에 SDN 표준화를 위한 별도의 포커스 그룹 신설을 주장하면서 일본, 유럽 및 한국이 반대한 바 있다. 만약 중국 제안이 받아들여졌다면, 한국이 주도하여 진행하고 있는 관련 표준개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것이며, 자칫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 회기 첫 회의에서 SG13내에 SDN 구조와 요구사항에 대한 작업을 확장 및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를 조직할 것 등을 결의안에 포함시켰다.

6. 전략적 검토 위원회 신설

일본의 제안을 바탕으로 ITU-T WTSA의 전략적 연구기능 강화와 향후 바람직한 ITU-T 구조개편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검토 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해당 결의와 작업범위(ToR)가 이번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앞으로 동 위원회에서는 ITU-T가 지속적으로 진화·발전해 나가는데 있어 현 구조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타 표준화기구와의 현행 협력방식에 대해 검토 및 새로운 협력방식을 모색, 제안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구조는 TSAG과의 관계가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TSAG 산하에 두자는 의견과 WTSA 산하에 두자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일본은 당초 취지에 맞도록 WTSA 산하에 신설을 주장하였으나 영국 및 캐나다 등 일부 서방국가와 아랍, 아프리카 지역의 개도국 다수는 TSAG 산하에 두는 것이 적절

하다고 주장하였다. 논의결과 TSAG의 관할 하에 두되 의장 1명과 6개 지역을 대표하는 부의장으로 구성하여 그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전략적 검토위원회 결의 주요 내용>

- 다음 총회에 TSAG를 통해 WTSA-16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TSAG은 수정 없이 이를 WTSA에 제출
- 작업과정에서 TSAG에 정기적으로 진척에 대해 보고하고 진척보고서에 대한 TSAG의 의견을 고려
- 참가와 관련해서는 회원국, 부문회원, 학계회원 외에 의장이 부의장 및 표준화국장과 협의해 준회원, 외부전문가와 외부기관 대표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 적격의 개도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펠로십 제공

7. 전자폐기물(e-waste)

아랍, 아프리카 등의 개도국은 SG5에서 e-waste 관련 연구가 추진되지 않고 있어 본 이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활발한 논의를 위해 신규 결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아랍지역 공동 제안서로 총회에 제출하여 논의를 시작하였다. 미국, 캐나다, 영국은 관련 결의 73에 e-waste 이슈가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반대하였으나, 일본 및 한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규결의로 제정하였다. 결의의 주 내용은 아프리카 및 아랍 지역으로 유입되는 전자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관리 및 처리 방법 개발을 위해 ITU-T가 권고, 보고서개발과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해 줄 것을 포함 하였다.

제3절 총회 결과

1. 연구반별 연구범위 및 과제

전기통신표준화 관련 10개 연구반 차기 연구회기(2012-2016) 작업범위(ToR)와 연구과제(Question)는 금년도 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조정되거나 신설되었다. 중복되는 이슈에 대한 리드그룹을 선정하였으며, ICT와 기후변화는 FG ICT&CC 활동이 종료되는 차기 TSAG 회의에서 재 고려하기로 하였다.

표 10. ITU-T 연구반별 Question 제·개정 및 폐지 승인 결과

| SG2 | SG3 | SG5 | SG9 | SG11 | SG12 | SG13 | SG15 | SG16 | SG17 |
|-----|-----|-----|-----|------|------|------|------|------|------|
| 7 | 5 | 19 | 13 | 15 | 17 | 19 | 18 | 18 | 12 |

가. SG2(전기통신관리)는 서비스 정의, 넘버링 및 라우팅, 재난 안정/사전 경고, 네트워크 안정성 및 회복, 통신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나. SG3(국제 전기통신 서비스에 대한 과금 및 정산방법)는 관련 연구와, 전기통신 관련 경제 및 정책 문제에 대한 연구를 담당한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낮은 수준의 효율 책정을 위해 나라 간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다. SG5(EMC/EMF)는 전자기의 양립성, 전자기의 효과, ICTs 및 기후변화 등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라. SG9(광대역 통합 케이블 및 TV 네트워크)는 UHDTV(Ultra HDTV), 3D TV 등과 같이 향상된 역량 확장이 가능한 TV, 음성 프로그램, 상호작용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관련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1차 및 2차 분배를 위한 전기통신 시스템의 사용관한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 마. SG11(신호방식 및 프로토콜, 지능망)는 IP기반 망, 네트워크 기술, NGN, M2M, IoT, FNs, 클라우드 컴퓨팅, 이동성, 일부 멀티미디어관련 신호 기능, 애드혹 네트워크(센서 망, RFID 등), QoS 등의 신호방식 요구사항 및 프로토콜 연구 등을 수행한다.
- 바. SG12(서비스품질 및 경험(experience) 품질)는 성능, 서비스품질(QoS), 단말의 전체 스펙트럼에 대한 경험품질(QoE), 네트워크, 이동 및 패킷기반 네트워크에서의 멀티미디어 응용과 관련하여 음성부터 고정 회선기반 네트워크등 상호 운용성 등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한다.
- 사. SG13(클라우드 컴퓨팅을 포함한 미래 네트워크 및 NGN, 이동성 관리)는 Future Network의 서비스 인식, 데이터 인식, 환경적 인식 및 사회경제적 인식에 관련된 Future Network의 요구사항, 구조, 역량 및 메커니즘 등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 아. SG15(전송, 접근 및 Home을 위한 네트워크, 기술 및 인프라)는 광전송 네트워크, 접근성 네트워크, 홈 네트워크 및 전력 유틸리티 네트워크 인프라 등을 연구하고 통신 네트워크의 맥내, 접근, 도시 및 장거리 섹션을 위한 표준 등을 개발한다.
- 자. SG16(멀티미디어 코딩, 시스템 및 응용)는 유비쿼터스 응용(e-모든 것), 장애인의 정보통신 접근성 등 미디어 코딩 및 시스템(네트워크 신호 전송장비, 게이트웨이, 게이트키퍼, 모뎀, 팩시밀리)을 포함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 차. SG17(보안)는 ICT 사용에 있어서 보안성 강화(사이버보안, 보안 관리, 스팸, ID 관리, 보안 구조, 프레임워크, 개인 ID 정보 보호, 보안 어플리케이션 및 IoT 서비스,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폰, IPTV, 웹 서비스, SNS,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재정 시스템 및 생체인식 포함)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2. 결의 및 A시리즈 권고 제·개정 결과

가. 결의(Resolution)

표 11. ITU-T 결의(Resolutions) 제·개정 결과

| Res.NO | 제 목 | 비 고 |
|--------|---|----------------------|
| 1 | ITU-T의 절차에 관한 규정 | 개 정 |
| 2 | ITU-T 연구반의 책임과 의무 | 개 정 |
| 7 | ISO 및 IEC와의 공동 협력 작업 | 개 정 |
| 11 | 우편 부문과 전기통신 부문 양쪽에 관련된 서비스 연구에 있어서 UPU의 POC 와의 협력 | 개 정 |
| 17 | 개발도상국의 이해와 관련된 전기통신 표준화 | 폐 지 (17.44.99 통합) |
| 18 | ITU-R 과 ITU-T에 대한 작업 할당 및 조정을 위한 원칙과 절차 | 개 정 |
| 20 | 국제 전기통신 번호 배정, 명칭 부여, 주소 지정, 식별기호 자원의 할당과 관리 절차 | 개 정 |
| 22 | TSAG의 WTSA간(연구회기중) 집행 권한 | 개 정 |
| 26 | SG3의 지역 그룹에 대한 지원 | 폐 지 |
| 29 | 국제 전기통신망을 이용한 대체 통화 수단 | 개 정 |
| 31 | 단체나 기구의 ITU-T에 준회원으로의 참여 허용 | 개 정 |
| 32 | ITU-T 연구 활동을 위한 전자적 작업 수행 방법의 강화 | 개 정 |
| 33 | ITU-T 전략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 개 정 |
| 34 | 자발적 기부 | 개 정 |
| 35 | ITU-T 연구반 및 TSAG 의장과 부의장의 임명과 최대 임기 | 개 정 |
| 38 | IMT와 관련된 활동을 위한 ITU-T, ITU-R 및 ITU-D 간의 조정 | 개 정 |
| 40 | ITU-T 작업의 규제적 측면 | 개 정 |
| 43 | WTSA의 지역 준비 활동 | 개 정 |
| 44 |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표준화 격차 해소 | 개 정 (17.44.99 통합) |
| 45 | ITU-T 연구반간의 표준화 활동의 효과적 조정과 TSAG의 역할 | 개 정 |
| 47 |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 네임 | 개 정 |
| 48 | 국제화된(다국어의) 도메인 네임 | 개 정 |
| 49 | ENUM | 개 정 |
| 50 | 사이버 보안 | 개 정 |

| Res.NO | 제 목 | 비 고 |
|--------|--|----------------|
| 52 | 스팸의 대처와 방지 | 개 정 |
| 53 | 세미나 및 워크숍 조정 위원회의 설치 | 폐 지 |
| 54 | 지역 그룹의 설립 | 개 정 |
| 55 | ITU-T 활동에서의 성문제 해결 | 개 정 |
| 56 | 개발도상국 출신의 TSAG 및 ITU-T 연구반 부의장의 역할 | 폐 지 |
| 57 | 공동 관심사에 대한 ITU-R, ITU-T 및 ITU-D 사이의 조정 및 협력의 강화 | 개 정 |
| 58 |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가적 컴퓨터 침해사고 대응팀 설립의 장려 | 개 정 |
| 59 | 개발도상국의 전기통신 운용자의 참여 제고 | 폐 지 |
| 60 | 번호 배정 시스템의 발전과 번호 배정 시스템의 IP 기반 시스템/망과의 융합에서 발생하는 도전에 대한 대응 | 개 정 |
| 61 | 국제 전기통신 번호 배정 자원의 오용 | 개 정 |
| 62 | 분쟁 해결 | 개 정 |
| 63 | 이동(Nomadic) 전기통신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연구 | 폐 지 (96 결정) |
| 64 | IP 주소 할당과 IPv6 보급 촉진 | 개 정 |
| 65 | 발신자 번호 전달 | 개 정 |
| 66 | TSB내에 기술 감시 기능(technology watch function) 신설 | 개 정 |
| 67 | 용어 표준화 위원회(SCV)의 설립 | 개 정 |
| 68 | WTSA(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의 진화하는 역할에 대한 결의 122(Rev.Antalya,2006)의 이행 | 개 정 |
| 69 | 인터넷 자원의 비차별적 접근 및 사용 | 개 정 |
| 70 | 장애인을 위한 전기통신/정보통신 기술 접근성 | 개 정 |
| 71 | 학계, 대학 및 관련 연구기관의 ITU-T 활동 참여 허용 | 개 정 |
| 72 | 전자기장에 대한 인체노출과 관련된 측정 문제 | 개 정 |
| 73 | 정보통신 기술과 기후 변화 | 개 정 |
| 74 | ITU-T의 업무에 대한 개발도상국 부문회원의 참여 허가 | 유 지 |
| 75 | WSIS 결과 이행에 있어서의 ITU-T의 기여와 WSIS에 대한 이사회 작업반의 핵심 부분으로서의 인터넷 관련 공공 정책 문제에 대한 전담반 설립 | 개 정 |
| 76 | 적합성 및 상호 운용성 시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그리고 가능한 미래의 ITU 마크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개 정 |
| 신규 |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표준화 | 제 정 |

| Res.NO | 제 목 | 비 고 |
|--------|--|-----|
| 신규 | 전기통신기기의 전자폐기물(e-waste)의 취급 및 관리와 처리방법 | 제 정 |
| 신규 | ITU- 전략 및 구조 리뷰 위원회의 설립 | 제 정 |
| 신규 | ITU 출간물의 발간시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인식(아카데미아 신규결의) | 제 정 |
| 신규 | ITU 내의 협력 강화 | 제 정 |

나. A 시리즈 권고

표 12. ITU-T A시리즈 권고 제·개정 결과

| Rec. No | 제 목 | 비 고 |
|---------|---------------------------------------|-----|
| A.1 | ITU-T 연구반 작업방법 | 개 정 |
| A.2 | ITU-T에 제출하는 기고서의 표현 | 개 정 |
| A.4 | ITU-T와 포럼/컨소시엄간의 교류절차 | 개 정 |
| A.5 | ITU-T 권고에서 다른 기구의 문서를 참조 인용하기 위한 일반절차 | 개 정 |
| A.6 | ITU-T와 국가 및 지역 표준개발기구 간의 협력과 정보 교환 | 개 정 |
| A.7 | 포커스그룹 : 작업 방법 및 절차 | 개 정 |
| A.8 | 신규 및 개정 권고에 대한 대체승인절차 | 유 지 |
| A.11 | ITU-T 권고와 WTSA 회의록의 간행 | 개 정 |
| A.12 | ITU-T 권고의 식별과 배열 | 유 지 |
| A.13 | ITU-T 권고에 대한 부속서 | 개 정 |
| A.23 | ISO 및 IEC와의 정보 기술에 대한 공동협력 작업 | 유 지 |
| A.31 | ITU-T 워크숍과 세미나의 조직을 위한 지침 및 조정 요구사항 | 유 지 |
| ASppe2 | 상호운용성 실험 지침 | 유 지 |
| ASppe3 | IETF와 ITU-T 간 협력 지침 | 유 지 |

3. 표준 승인

연구반별로 총회에 직접 상정된 권고는 총 6건이다. 해당 연구반에서 3-4년동안 계류하였거나, 나라별 이견으로 승인되지 못했던 이슈인 만큼 나라별로 암묵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애를 썼다. SG3에서 올라온 국제전기통신 서비스에서의 계정 정산시기(권고 D.195)의 경우 국제전기통신서비스에서 트래픽의 월정 계정 보고 기간을 50일에서 30일로 축소하되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50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승인하였다. NGN관련 권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SG13의 활동 분야 중, Q17/13에서 개발하고 있는 관련 권고의 하나로서 상세 패킷 검사(Deep Packet Inspection, 권고 Y.2770)이다. NGN에서 패킷 내용 중 어드레스 분야(패킷 주소, Flow 주소 및 트래픽 유형 등)검사를 시행하는 DPI 기능의 요구사항 수록하는 등 권고는 어드레스 분야의 내용 검사를 통하여 이용자서비스 요구사항에 보다 적절한 통신 능력을 제공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담고 있으며 동 권고의 적용은 각국의 규제 및 정책 환경에 따라서 적용하도록 합의되어 최종 승인되었다. SG15에서는 협대역 OFDM 송수신기 관련 권고 등 4개의 권고가 승인되었다. 첫째는, 기존에 승인되어 적용중인 권고 G.9955 (협대역 OFDM 송수신기-물리계층 사양)에서 전력 스펙트럼의 밀도 (PSD: Power Spectral Density)의 전송, 전력선을 이용한 전송 시 PSD 측정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어 파라미터를 다룬 있는 권고(G.9901)이다. 둘째는, ITU-T가 주도하는 권고(G.8113.1)와 IETF 가 주도하는 권고(G.8113.2)이 복수 표준으로 승인되었다. 둘 다 MPLS-TP OAM⁷⁾(운용·관리·유지)과 선형 보호절체, 링 보호절체 표준화 솔루션을 다루지만, 그 기반이 서로 틀려 사용자의 편의에 따른 효율적인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맥내에 있는 통신 장비를 원격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 프로토콜 규격을 제시하는 권고 G.9980가 승인되었다. 독일의 제안으로 동 권고의 적용범위에 가입자 단말장치의 원격제어, 펌웨어 업데이트 시 국가 또는 지역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문안을 추가하여 합의하였다.

7) Operations, Administration and Maintenance,

4. 연구반별 의장단

이번 총회에서는 ITU-T 차기 회기(2012~2016) 10개 연구반(SG), 1개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1개 표준화 단어 그룹, 1개 리뷰 그룹 및 3개 요금그룹(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오세아니아) 등 의장 17명 및 부의장 102명이 선출되었다. 다만 SCV 의장과 지역 부의장(UK/US, 프랑스), 금번 신설된 ITU-T 전략검토위원회(Review Committee), SG3 지역그룹 의장 및 부의장 미정이다.

우리나라는 SG 의장 1명, 부의장 9명, 지역그룹 의장 1명 등 총 11명 진출로 세계 최대 의장단 보유하게 되었다.

표 13. 2013년~2016년 회기 ITU 의장단 현황

| 연구 반 | 직 책 | 이름 |
|---|-----------|------------------------------------|
| TSAG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 부의장 - 6 | 의장 | Mr Bruce GRACIE(캐나다) |
| | 부의장 | Mr Fabio BIGI(이탈리아) |
| | | Mr Mohammad GHEYATH(아랍에미리트) |
| | | Mr Vladimir MINKIN(러시아) |
| | | Mr Matano NDARO(케냐) |
| | | Ms Monique MORROW(미국) |
| | | Ms Weiling XU(중국) |
| SG 2 (서비스 제공 및 통신 관리의 운용적 측면) 부의장 - 8 | 의장 | Mr Sherif GUINENA(이집트) |
| | 부의장 | 안근영(한국, RRA) |
| | | Mr Abdullah AL-MUBADAL(사우디아라비아) |
| | | Mr Saif BIN GHELAITA(아랍에미리트) |
| | | Mr Nazim JAFAROV(아제르바이잔) |
| | | Mr James KILABA(탄자니아) |
| | | Mr Bruno RAMOS(브라질) |
| | | Mr Phil RUSHTON(영국) |
| | | Ms Jie ZHANG(중국) |
| SG 3 (전기통신 관련 경제 및 정책상 문제를 포함한 과금 및 회계 원칙) 부의장 - 8 | 의장 | Mr Seiichi TSUGAWA(일본) |
| | 부의장 | 이병남(한국, ETRI) |
| | | Ms Biendjui Josephine ADOU(코트디부아르) |
| | | Mr Facundo Fernandez BEGNI(아르헨티나) |
| | | Mr Leslie MARTINKOVICS(미국) |
| | | Mr Raynold MFUNGAHEMA(탄자니아) |
| | | Mr Ahmed SAID(이집트) |
| | | Mr Dominique WURGES(프랑스) |
| | | Mr Alexandr YAKOVENKO(러시아) |
| TAF | 의장 | Mr Abosse AKUE-KPAKPO(토고) |

| 연 구 반 | 직 책 | 이름 |
|---|------|---|
| (Tariff Group for Africa) 3 | 부위원장 | Mr Saliou TOURE(세네갈) |
| | | Ms Biendjui Josephine ADOU(코트디부아르) |
| | | Mr Raynold MFUNGAHEMA(탄자니아) |
| | | Ms Pauline TSAFAK DJOUMESSI(카메룬) |
| TAL (Tariff Group for Latin America) | 의장 | Mr Tito LOPEZ(파라과이) |
| | 부위원장 | Ms Cynthia REDDOCK-DOWNES(트리니다드토바고) |
| TAS (Tariff Group for Asia and Oceania) 2 | 의장 | 이병남(한국, ETRI) |
| | 부위원장 | Mr Otgonchimeg BUYANJARGAL(몽골) |
| | | Mr Yasunori MATSUDA(일본) |
| | | Mr Ahmed ZEDDAM(프랑스) |
| SG 5 (전자기적 환경영향의 보호) 부위원장 - 10 | 의장 | 정삼영(한국, RRA) |
| | 부위원장 | Mr Tariq ALAMRI(사우디아라비아) |
| | | Mr Nasser ALMARZOUQI(아랍에미리트) |
| | | Mr Hector CARRIL(아르헨티나) |
| | | Mr Flavio CUCCHIETTI(이탈리아) |
| | | Mr Keith DICKERSON(영국) |
| | | Ms Fatoumata S DICKO(말리) |
| | | Mr Guy-Michel KOUAKOU(코트디부아르) |
| | | Mr Josef OPITZ(독일) |
| | | Mr Li XIAO(중국) |
| | | Mr Arthur WEBSTER(미국) |
| SG 9 (종합 광대역 케이블 망, TV 및 음성전송) 부위원장 - 5 | 의장 | Mr Antoine Michel BOUSTANI(레바논) |
| | 부위원장 | Mr Ayanzhan Shulembaevich BULDYBAYEV(카자흐스탄) |
| | | Mr Satoshi MIYAJI(일본) |
| | | Mr Habib TALL(기니) |
| | | Mr Dong WANG(중국) |
| | | Mr Wei FENG(중국) |
| SG 11 (신호방식 요구조건 및 프로토콜, 시험 명세) 부위원장 - 6 | 의장 | 강신각(한국, ETRI) |
| | 부위원장 | Mr Isaac BOATENG(가나) |
| | | Mr Martin BRAND(오스트리아) |
| | | Mr Kaoru KENYOSHI(일본) |
| | | Mr Dmitry TARASOV(러시아) |
| | | Mr Horacio Villalobos TLATEMPA(멕시코) |
| SG 12 (성능 및 서비스 품질) 부위원장 - 9 | 의장 | Mr Kwame BAAH-ACHEAMFUOR(가나) |
| | 부위원장 | 김형수(한국, KT) |
| | | Mr Paul BARRETT(영국) |
| | | Mr Vincent BARRIAC(프랑스) |
| | | Mr Gamal Amin ELSAYED(수단) |
| | | Mr Al MORTON(미국) |
| | | Mr Feng QI(중국) |
| | | Mr Jose Guadalupe Rojas RAMIREZ(멕시코) |
| | | Mr Akira TAKAHASHI(일본) |

| 연구 반 | 직 책 | 이름 |
|--|-----------|---|
| | | Mr Hassan TALIB(모로코) |
| SG 13 (이동 및 NGN을 포함한 차세대통신망) 부의장 - 10 | 의장 | 이재섭(한국, KAIST) |
| | 부의장 | Mr Mohamed AL RAMSI(아랍에미레이트) |
| | | Mr Simon BUGABA(우간다) |
| | | Mr Jamil CHAWKI(프랑스) |
| | | Mr Ahmed EL RAGHY(이집트) |
| | | Mr Yoshinori GOTO(일본) |
| | | Mr Leo LEHMANN(스위스) |
| | | Ms Huilan LU(미국) |
| | | Mr Slaheddine MAAREF(튀니지) |
| | | Mr Konstantin TROFIMOV(러시아) |
| | | Mr Heyuan XU(중국) |
| SG 15 (광 및 기타 전송망 기반) 부의장 - 9 | 의장 | Mr Steve TROWBRIDGE(미국) |
| | 부의장 | 류정동(한국, ETRI) |
| | | Mr Ghani ABBAS(영국) |
| | | Mr Noriyuki ARAKI(일본) |
| | | Mr Fahad ALFALLAJ(사우디아라비아) |
| | | Mr Viktor KATOK(우크라이나) |
| | | Mr Dan LI(중국) |
| | | Mr Francesco MONTALTI(이탈리아) |
| | | Mr Atilio Eduardo REGGIANI(브라질) |
| | | Mr Helmut SCHINK(독일) |
| SG 16 (멀티미디어 코딩, 시스템 및 응용) 부의장 - 8 | 의장 | Mr Yushi NAITO(일본) |
| | 부의장 | 정성호(한국, 한국외대) |
| | | Mr Gaby DANIEL(레바논) |
| | | Mr Mohannad EL-MEGHARBEL(이집트) |
| | | Mr Khusan ISAEV(우즈베키스탄) |
| | | Mr Paul JONES(미국) |
| | | Mr Harald KULLMANN(독일) |
| | | Mr Zhong LUO(중국) |
| SG 17 (정보보호) 부의장 - 9 | 의장 | Mr Arkadiy KREMER(러시아) |
| | 부의장 | 염홍열(한국, 순천향대) |
| | | Mr Khalid BELHOUL(아랍에미레이트) |
| | | Mr Antonio C GUIMARAES TEIXEIRA(브라질) |
| | | Mr Mohamed Mohamed Khair Almobark ELHAJ(수단) |
| | | Mr Zhaoji LIN(중국) |
| | | Mr Patrick MWESIGWA(우간다) |
| | | Mr Koji NAKAO(일본) |
| | | Mr Mario German Fromow RANGEL(멕시코) |
| | | Mr Kemal Sacid SARIKAYA(터키) |
| Standardization Committee for Vocabulary(SCV) (표준화 단어 그룹) | 의장 | (미정) |
| | 부의장 | Mr Angel LEON-ALCADE(스페인) |

| 연구 반 | 직 책 | 이름 |
|--|------|-------------------------|
| 부위원장 - 6 | | Mr Oleg MIRONNIKOV(러시아) |
| | | Mr Sami Hassan OMER(수단) |
| | | Ms. Huang XIANQIONG(중국) |
| | | (영국/미국) |
| | | (프랑스) |
| Review Committee (리뷰 그룹) 부위원장 - 2 | 의장 | Mr Yoichi MAEDA(일본) |
| | 부위원장 | 박기식(한국, ETRI) |
| | | (바레인) |

제5장 결 론

금년도 수행과제는 한국ITU연구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ITU 전문가 육성 및 국제협력활동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여 국제협력 활동 성과제고를 목표로 하였다. WRC-12 이후 후속 조치로 IMT용 추가 주파수 대역에 대해 기존업무(위성, 방송, 과학 등)와의 공유연구를 담당하는 JTG 4567 이 구성되면서 본 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활동전문가를 보완하여 대응 연구반을 별도로 신설하여 대응하도록 하였으며, ICT 글로벌 시장화와 산업촉진 차원에서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언어 문자입력세트 표준화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문자판 표준(E.161) 개정 추진을 위한 특별반을 구성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정 개정(안)을 본 보고서에 수록하였으며, 차기 운영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ITU-R 및 ITU-T 20여개 연구반의 운영 및 활동에 관여하는 총회의 결과를 본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ITU-R 총회(RA-12)에서는 6개 주제(전파관리, 전파전파, 위성, 고정, 방송, 과학업무)의 연구반별 연구범위 및 과제가 배분 승인되었다. SG6의 경우는 방송품질 등 총 66개의 연구과제 승인으로 6개 연구반 중 제일 많은 과제가 배분되었으며, SG1의 경우는 12개로 다소 작은 과제가 배분되었다. 그러나 그 무게 중심이 전파관리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표준화 활동이 예상된다. RA-12에서 6개 연구반 관련결의 35개를 대상으로 26개의 결의가 개정되었으며, 권고안에 대한 대체승인절차(AAP)의 적용에 관련한 1개의 결의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무선인지시스템(CRS)의 이용과 실행에 관한 연구 등 6개의 신규결의가 제정되었다. 금년 총회에서 유일하게 이동업무 관련 표준안인 IMT-Advanced 무선접속 관련 권고가 이견 없이 승인되었고, 한국은 ITU-R의장단에 4명의 부의장(CPM, RAG, SG6, SG7)을 배출하였다.

ITU-T 총회(WTSA-12)에서는 전기통신표준화 관련 10개 연구반 차기 연구회기(2012-2016) 작업범위(ToR)와 연구과제(Question)가 조정되거나 신설되었다. 금년도 총회에서는 10개 연구반을 그대로 두고 사물지능통신(M2M) 등 중복되는 이슈에 대한 리드그룹을 선정하였다. ITU-T의 절차에 관한 규정 등

ITU-T의 관련결의 76개 등을 대상으로 개정, 통폐합 및 폐지되었다. 개발도상국의 이해와 관련된 전기통신 표준화, 표준화 격차 해소, 운용자의 참여 등의 주제는 하나로 통폐합되었다. 금년도에 신규로 제정된 결의는 총 5개로 그중 ITU- 전략 및 구조 리뷰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것이 눈에 띈다. WTSA의 전략적 연구기능 강화와 향후 바람직한 ITU-T 구조개편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전략적 검토 위원회”도 함께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는 TSAG의 관할 하에 두되 의장 1명과 6개 지역을 대표하는 부의장으로 구성하여 그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한국이 APT를 대표하여 부의장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연구반별로 금년 총회에 직접 상정된 권고는 총 6건이다. 해당 연구반에서 3-4년 동안 계류하였거나, 나라별 이견으로 승인되지 못했던 이슈인 만큼 나라별로 암묵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성공하여 승인되었다. 마지막으로, ITU-T 차기 회기(2012~2016) 10개 연구반(SG), 1개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1개 표준화 단어 그룹, 1개 리뷰 그룹 및 3개 요금그룹(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오세아니아) 등 의장 17명 및 부의장 102명이 선출되었으며, 그 중 우리나라는 SG13 의장 등 총 11명의 의장단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국은 ITU-R 및 ITU-T에서 많은 부의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며, 향후 표준화를 선도 할 의장 등 핵심 전략 전문가 배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표준화 전략 사업에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금년도 총회에서 선출된 의장단 뿐 아니라, ITU-T의 경우 120여명의 주제별 에디터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ITU 연구위원회는 이들의 표준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 지원 및 고차원적인 인력교육 등을 수행하여 세계적인 표준화 선도국으로 향해 갈 것이다.

[참고문헌]

- [1] 임차식, “전파통신총회 대응준비보고서”, 국립전파연구원, RRA-2012-R-5-401, 2012년 1월
- [2] 이동형, “전파통신총회 참가결과보고서”, 국립전파연구원, RRA-2012-RS-402, 2012년 6월
- [3] 이동형, “한국ITU연구위원회 연차보고서”, 국립전파연구원, RRA-2012-ETC-502 PP. 36-38 2012년 6월
- [4] 이동형, “세계 전기통신표준화 총회 대응 준비보고서”, 국립전파연구원, RRA-2012-ETC-701, 2012년 11월

[부록 1]

< 한국ITU연구위원회 관련 보도자료 >

- 1) 2012년 1월 19일(목) 국산 4G기술 국제표준으로 최종 확정
- 2) 2012년 1월 20일(금) ITU-R, 국내 전문가 4명 부의장 진출
- 3) 2012년 2월 2일(목) 세계전파통신회의(WRC-12), 주파수 확보 경쟁 치열
- 4) 2012년 2월 15일(수) 방통위, ITU 국제전기통신규칙 개정 준비 전담반 가동
- 5) 2012년 2월 20일(월) 세계전파통신회의 (WRC-12) 성공적으로 끝마쳐
- 6) 2012년 7월 5일(목) 한국 대표단, 2012년 ITU 이사회 참석
- 7) 2012년 9월 12일(수) 세계전파통신회의 준비를 위한 아 · 태지역 전파 통신회의(APG-15) 의장단 진출
- 8) 2012년 9월 14일(금) 방통위 전파통신서비스 보호거리 계산방법에 관한 세계 첫 번째 ITU 국제표준 채택
- 9) 2012년 10월 11일(목) 한국, ICT 인프라 부문 세계 1위
- 10) 2012년 10월 26일(금) ITU 국제표준화 전문가 교육 개최
- 11) 2012년 11월 18일(일) 방통위, ICT 국제표준화 올림픽 대표단 파견
- 12) 2012년 11월 30일(금) 한국, ICT 국제표준화 주도국 위상 확보
- 13) 2012년 12월 3일(월) 방통위, 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 대표단 파견
- 14) 2012년 12월 16일(일) ITU 국제전기통신규칙(ITRs) 24년 만에 개정

※ 수록된 보도자료 일부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수행하지 않았으나 한국의 ITU 대응의 주요 성과와 연계되어 본 보고서에 수록

보도자료

2012년 1월 19일(목)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정현철(710-6440) hchung@kcc.go.kr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최남호사무관(710-6460) nhchoi@kcc.go.kr

국산 4G기술 국제표준으로 최종 확정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임차식)은 2012년 1월 18일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 총회*(12.1.16~20, 제네바)에서 이동통신 4G(IMT-Advanced**)기술의 국제표준(ITU-R M.[IMT.RSPEC]***)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RA-12 : Radiocommunication Assembly 2012

** 4G에 대한 ITU의 공식 명칭으로 LTE-Advanced와 WiBro Evolution을 포함하며, 이동 시 100Mbps, 고정 시 1Gbps의 전송속도를 지원

*** Detailed specifications of the terrestrial radio interfaces of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Advanced(IMT-Advanced 무선접속 표준)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ITU, IEEE, 3GPP* 및 지역 표준화 기구의 4G 표준화 회의에 120여회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 결과, 금번 전파통신총회에서 확정된 이동통신 4G 국제표준에 다수의 우리기술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 LTE계열 통신기술 표준화 단체로 삼성전자, LG전자, ETRI, KT, SKT, LGU+, 팬택 등 12개 국내기업 참여 중

※ 국내기업의 LTE-Advanced 핵심특허 점유율 : 30%이상(美 경제지 포브스 기준)

IMT-Advanced는 초고화질의 울트라 HD급 동영상 및 3D 콘텐츠를 이동통신 단말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2015년 상용화될 경우 관련분야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이 5년간 350조원 이상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자료 : ① LTE 시장 현황 및 전망,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6권 제4호, 2011년 8월, ② WiBro 시장 현황 및 전망,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6권 제4호, 2011년 8월 끝.

2012.1.20(금).

보도자료

2012년 1월 20일(금)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정현철(710-6440) hchung@kcc.go.kr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최남호사무관(710-6460) nhchoi@kcc.go.kr

ITU-R, 국내 전문가 4명 부의장 진출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임차식)은 2012년 1월 19일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총회('12.1.16~20, 제네바)에서 위규진 전파환경안전과장, 김경미 연구관, 성향숙 연구관(이상 국립전파연구원), 정현수 박사(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가 ITU-R 부의장에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뒷면에 계속

※ ITU 전파통신(ITU-R) 조직 및 진출 현황

| 구 분 | 주요 업무 | 국내 의장단 현황 |
|-----------|--------------------------|-----------|
| SG1(전파관리) | 스펙트럼 관리, 전파감시, 기술기준 등 | |
| SG3(전파전파) | 전파원리 및 특성 연구, 전파 예측 등 | |
| SG4(위성업무) | 위성궤도, 위성등록, 위성주파수 등 | |
| SG5(지상업무) | 이동통신, 해상·항공, 육상이동 등 | |
| SG6(방송업무) | 지상파 방송, 디지털 TV, DMB 등 | 김경미 연구관 |
| SG7(과학업무) | 우주연구, 표준시, 전파천문 등 | 정현수 연구원 |
| RAG | 전파통신총회 위임업무 대행 | 성향숙 연구관 |
| CPM | 세계전파통신회의 준비회의 | 위규진 과 장 |
| CCV | 전파통신분야 용어조정 | |
| SC | 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 |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전문가들이 세계 전파통신 정책을 결정하고 방송통신분야 국제표준을 제·개정하는 ITU-R 의장단 진출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국제무대에 있어 우리나라의 입장반영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끝.

보도자료

2012년 2월 2일(목)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파기획관 주파수정책과 김정삼 과장(☎750-2270)
주파수정책과 이윤호 사무관(☎750-2281) lyho@kcc.go.kr

세계전파통신회의(WRC-12), 주파수 확보 경쟁 치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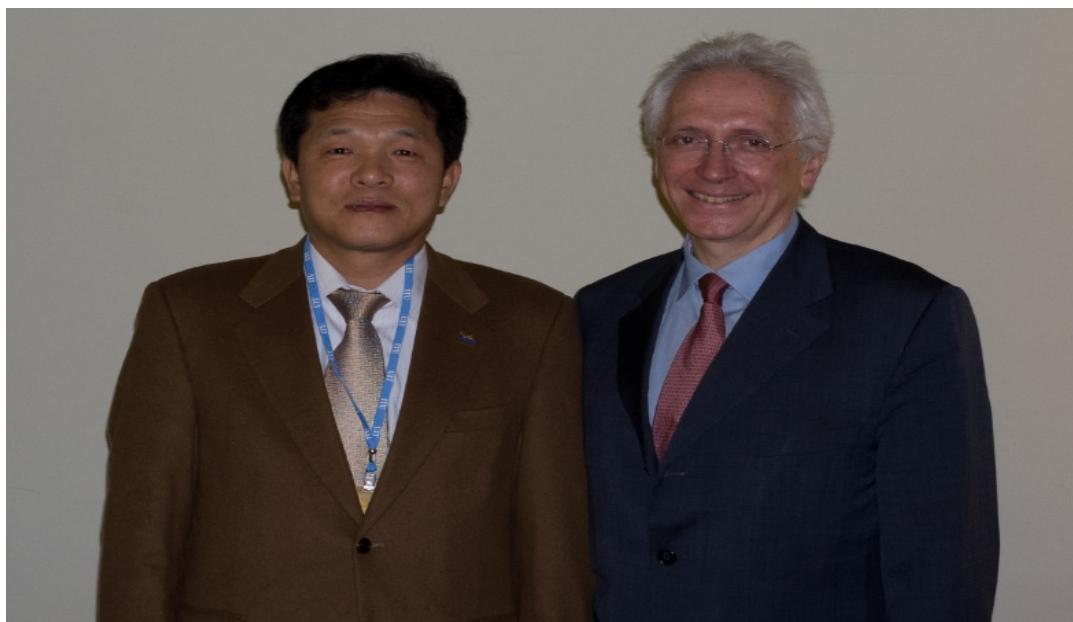
- “아프리카 및 아랍지역 국가들, 700MHz대역 이동통신용 추가 활용 제안”,
“차기 WRC-15 의제발굴 논의도 본격시작”-

지난 1월 23일부터 시작된 WRC-12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역 사상 가장 많은 인원(3,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쟁점의제에 대한 국가간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WRC에서 정하는 전파규칙에 따라 각국의 가용 주파수와 전파이용 방법이 결정되는 등 이번 회의 결과가 각국의 주파수 자원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우리나라도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축으로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55명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가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ITU-R(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국) 프랑소와 랑시 국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모바일 트래픽 폭증에 따라 주파수 확보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차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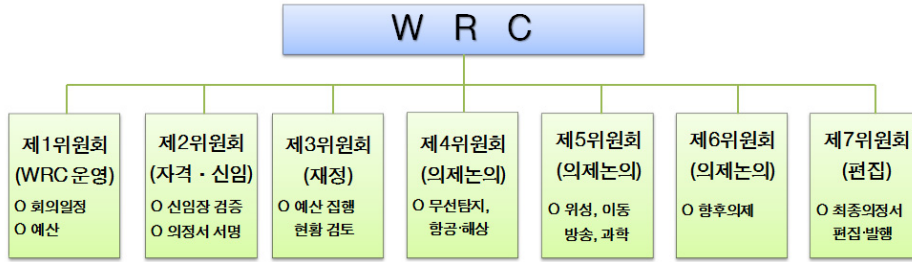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의 방안으로 지난 1월 20일 의결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회의에서 차기 WRC-15 의제로 채택될 것이 유력한 국제 공통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랑시 국장은 “그 동안 대한민국이 ITU-R 활동에 매우 큰 기여를 해 왔음에 감사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남석 국장은 ITU-R 랑시국장과의 면담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WRC-12에서 4주간의 회의진행을 주도할 의장단 선출 및 조직구성을 완료했다. WRC-12 의장으로는 아랍 에미레이트의 알 아와디가 선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 김경미 연구관이 차기의제를 논의하는 제6위원회의 부의장에 선출되어 활동 중이다.

< WRC 구조 >



※ WRC는 운영·재정 등 7개 위원회와 그 산하에 항공·해상, 레이다, 이동통신·방송, 과학, 위성 및 차기의제를 담당하는 6개 작업반으로 구성

현재 WRC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무선 광대역 수요 충족이 시급한 아랍 및 아프리카 지역이 제안한 이동통신용 추가 주파수 확보 의제이다. 지난 WRC-07 회의에서 제1지역(유럽, 아랍, 아프리카)에 속한 국가들은 DTV 여유대역(Digital dividend)으로 790~862MHz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한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 제1지역 국가 중 아랍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700MHz 대역도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하자고 긴급 제안했다. 아프리카 및 아랍 지역은 유선 통신망 보급률이 각각 0.2%, 2.3%에 불과하여, 넓은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유선망보다는 1GHz이하의 저주파 대역을 활용한 무선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유럽지역 국가들은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의 추가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현재 무선 데이터 트래픽 수요가 항상 예측치를 뛰어 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700MHz 이하 대역 등 확보가능한 많은 주파수 대역을 검토해야 하므로 일정기간 연구를 통해 차기 회의인 WRC-15에서 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주파수의 분배 시기에는 이견이 있으나 이번 또는 차기 회의에서 700MHz 대역은 유럽, 아랍,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동 대역이 유럽 및 아프리카 등에서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될 경우 700MHz 대역은 2.1GHz대역과 같이 아태지역 및 미주지역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사용하는 국제공통대역이 될 전망이다.

개회 둘째주인 1월 30일부터는 차기 WRC-15의제를 확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되었다. 제6위원회에서는 이동통신, 자동차 안전운행 레이더, 위성 분야 주파수 분배 및 재난통신 연구 등 총 9개 분야에서 78개의 차기 WRC(2015년 예정)의제 관련 기고서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부족한 이동통신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의제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선호하는 대역은 다르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제 채택에 찬성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가 의제로 채택되면 향후 3년간의 연구를 통해 '15년에 신규 주파수가 분배될 예정이다.

※ 미국은 1.7GHz(1,695~1,710MHz) 및 4.2~4.4GHz 대역, 러시아는 3GHz 이하대역, 아랍·아프리카는 790MHz 이하대역, 유럽 및 아태지역은 특정 주파수 대역을 명시하지 않고 전 대역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일 전파국장회의, 한·중 전파국장회의, 전파관련 국제기구 활동 등을 통해 국가간

협력강화 및 전문가 양성에 노력해 온 만큼,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과외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2.15.(수)

보도자료

2012년 2월 15일(수)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이상학 과장(☎750-2510)
 통신정책기획과 최동원 사무관(☎750-2511) loni1@kcc.go.kr

방통위, ITU 국제전기통신규칙 개정 준비 전담반 가동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올해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에서 국제전기통신규칙(ITR)을 개정기로 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제전기통신규칙 개정 준비 전담반’(이하 ‘전담반’)을 구성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제전기통신규칙(ITR)은 무선분야의 전파규칙(RR)에 대응하는 유선 분야 국제 규칙으로서,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고 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제통신망 관리, 통신요금의 과금과 국가간의 국제통신 요금 정산 등에 대한 일반 원칙과 규정을 다루고 있다.

ITU의 개정논의에서 주요 쟁점은 국제 전화요금의 정산체계, 통신요금 사기 및 번호오용 방지, 발신자번호표기 의무화, 보이스 피싱 방지 등으로 현재 동 이슈와 관련한 국제적 규제범위에 대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협회 등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하고, 2월 8일(수) 키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을 위한 본격적 논의를 개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전담반을 ITU의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 작업이 완료되는 12월까지 운영하면서 다른 국가가 제안한 개정안에 대한 국내 통신 정책 및 제도와의 부합성, 국내 통신사업자의 국제통신서비스 제공 관행과의 관계, 국내 통신시장 파급효과 및 향후 통신산업 발전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안에 대한 국내입장을 마련하고 동 개정안에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전담반 운영 과정에서 통신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통신시장 파급효과 분석 과정을 거쳐 국제전기통신규칙(ITR) 개정 작업이 국내 통신서비스 및 산업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약어

- | | |
|--------|---|
| - 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 - ITR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
| - RR | Radio Regulation |
| - WCIT | 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

2012. 2. 20.(월)

보도자료

2012년 2월 20일(월)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 파기획관 주파수정책과 김정삼 과장(☎750-2270)
 주파수정책과 이윤호 사무관(☎750-2271) lyho@kcc.go.kr

세계전파통신회의 (WRC-12) 성공적으로 끝나며

- 재난·재해 방지 및 산업·경제적 효과가 큰 분야 2.9GHz폭 확보-
- 제1지역(유럽, 아프리카, 아랍)도 700MHz를 이통용으로 분배 결의 -

지난 1월 23일부터 4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세계전파통신회의(WRC-12)가 2월 18일 끝났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송·통신, 항공·해상, 우주·과학 등에서 활용 가능한 총 29GHz폭의 신규 주파수가 분배되었으며, 차기 회의인 WRC-15에서 논의할 이동통신용 주파수 추가 확보 등 27개 의제를 채택하였다.

방송위성용, 무인항공시스템용 주파수 등 국내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의제 뿐만 아니라, 해양 레이더용, 공공용 주파수 등 국민생활 편의 증진 및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많은 의제들이 이번 회의에서 핵심의제로 다루어졌다.

UHDTV, 3DTV 등 차세대 방송을 위한 21GHz대역 방송위성용 주파수(700MHz폭)를 확보하여 차세대 방송용 기기산업과 방송콘텐츠 산업에서 시장확대 및 산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21GHz대역에서 방송위성용 주파수(700MHz폭)를 추가 확보하여 UHD TV(채널당 약 20MHz)용도로 약 30개 채널 제공 가능해짐

또한, 최근 기상관측, 산림감시, 농약살포 등 공공 및 민간용으로 이용확대가 전망되는 무인항공시스템용 주파수 61MHz폭을 확보하여 무인항공기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역시 예상된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무인항공기 산업에서 향후 5년간 국내생산 2,416억원, 이에 따른 생산유발 2,867억원, 부가가치유발 986억원의 효과 전망

특히 무인항공시스템용 주파수 확보과정에서 중국은 자국의 기 이용 중인 항공 무선국에 전파간섭을 줄 수 있다며, 중국 국경과 인접한 국가들은 무인항공기 운영시 중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무인항공 시스템용 주파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 되었으나, 우리나라 대표단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TU 전파통신국 및 미국·아태지역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중국의 동의 절차없이 무인항공기 운영이 가능한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최근 기름 유출, 쓰나미 발생 등 해상재난 방지를 위해 해양 레이더용으로 3~50MHz 대역에서 2.425MHz폭의 주파수가 분배되었다. 이에 따라 기름 유출 등 해양오염 발생시 해류 방향을 조기에 파악하여 오염지역 확산을 최소화시키고, 쓰나미 발생시 조기경보(약 1시간전)를 통해 충분한 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 등은 해양레이더를 이용하여 전 연안의 “실시간 해수 유동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11년~’20년, 약 50개 설치 예정)

2012. 7. 5.(목)

보도자료

2012년 7월 5일(목) 9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제협력관 ITU 전권회의 준비팀 배중섭 팀장(☎750-1740) jsbae3@kcc.go.kr
 안영훈 사무관(☎750-1741) hellohoon@kcc.go.kr

yangkinice@kcc.go.kr

한국 대표단, 2012년 ITU 이사회 참석

- 하마둔 뚜레 ITU 사무총장과 2014년 전권회의 성공개최 방안 논의 <ITU 사무총장, 9월에 한국 방문>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대표단(단장: 최재유 기획조정실장)은 7월 4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본부에서 열리는 2012년 이사회(Council)에 참석하여 하마둔 뚜레(Hamadoun TOURE) ITU 사무총장과 면담 하였으며, 아울러 우리나라의 2014년 ITU전권회의 준비상황을 개막식에서 발표하였다.

ITU 이사회는 당해 연도 ITU 주요 정책 의제, 재정 및 인사정책 등을 검토·승인하는 연례 회의로써, 193개 회원국 중 전권회의에서 선출된 48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9년 첫 이사국이 된 이후 최근 2010년 멕시코 전권회의까지 6회 연속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ITU의 주요 정책 논의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

이사회 본회의에 참석한 최재유 단장은 전권회의 준비 기반 구축을 위한 대통령훈령 제정(6.28 발령, 7.1 시행), 하반기 범정부 공식 조직 출범에 대비한 방통위 내 사전준비단 발족 등 우리나라의 2014년 ITU 전권회의 개최 준비 현황을 전체 이사국 대표단에 보고하였다.

또한, 지난 5월 27일 ITU 근무 중에 사망한 고 김기권 국장의 장례 절차에서 보여준 ITU 사무국과 직원들의 애도의 마음에 대해 감사를 표명하였다.

이사회 본회의에 앞서 이뤄진 ITU 하마둔 뚜레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양 측은 2014년 전권회의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ITU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뚜레 사무총장은 과거 전권회의의 사례를 설명하며 한국 정부가 전권회의의 관련 업무를 담당할 핵심 인력을 ITU 본부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최재유 단장은 한국의 전권회의 개최에 뚜레 사무총장이 깊은 관심을 표명해준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한국 내 준비현황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ITU 사무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위해 오는 9월 뚜레 사무총장을 한국으로 초청한다는 방송통신위원장의 뜻을 전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이사회 참석 등 지속적인 IT 외교 활동을 통해 국제 ICT 정책 결정 과정에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과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4년 개최되는 ITU 전권회의를 우리의 ICT 기술을 활용하여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따뜻하고 스마트한 전권회의로 준비하기 위해 ITU와 각 회원국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 붙임. 1. 2012년 ITU 이사회 개요
2. ITU 전권회의 개요. 끝

[붙임 1]

2012년 ITU 이사회 개요

□ 개요

○ 기간 및 장소 : '12. 7. 4(수) ~ 7. 13(금), 스위스 제네바

○ 참가대상 : 48개 이사국 대표단 약 300여 명

※ 한국대표단 : 기획조정실장(수석대표), 국제기구담당관, ITU전권회의준비팀장 등 12명

○ 주요의제

- ITU의 '12년 예산 계획 집행 현황, 부문별 운영계획 심의
- 차기 전권회의(한국, '14년) 등 주요 ITU 회의 준비상황 검토
- 전파, 표준화 인터넷, 사이버보안 등 약 40여개 정책적 의제 논의

□ 주요 활동(안)

- 한국의 2014년 ITU 전권회의 준비상황 보고 (한국 수석대표 발언)
- 전권회의 개최 준비를 위해 ITU 사무총장과 면담
- 주요 이슈 및 정책별 동향 분석과 우리나라 입장 발표

| 일 정 | 수석대표 주요 활동 |
|---------|--|
| 7.3 (화) | ○ ITU 사무총장 면담 및 만찬 |
| 7.4 (수) | ○ ITU 이사회 개막식 참석 ○ 이사회 참석 및 2014 ITU 전권회의의 한국 측 준비상황 보고 |
| 7.5 (목) | ○ ITU 이사회 본회의 참석 |

[붙임 2]

ITU 및 전권회의(PP) 개요

- 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

□ **설립/사무국 소재** : 1865. 5. 17. / 스위스 제네바

※ 정보통신 부문 최대, 최고(最古) 국제기구로 국제연합(UN)의 14개 전문기구 중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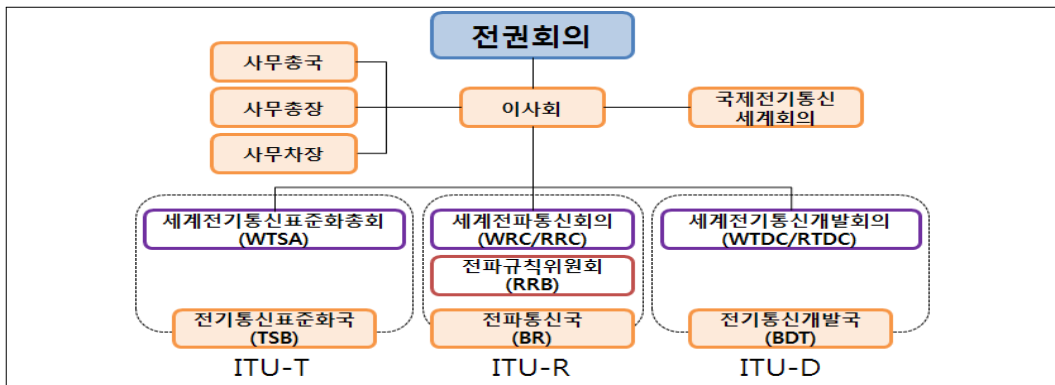
□ **회 원 국** : 193개국(민간회원 762개 기관)

□ **주요 업무**

- 국가 간 전파간섭 방지를 위한 무선 주파수 대역 할당, 궤도위성의 위치 등록 및 국제 전파규칙 관리
-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향상 및 범세계적인 전기통신표준화* 촉진
* 4G 주파수 분배 및 기술표준 채택, 지상파 DMB 및 디지털음성방송 표준 채택 등
- 개발도상국 정보통신 발전을 위한 기술지원, 통신설비·망 구축 지원, 자원조달 등 회원국 간 건설적 국제협력 증진

□ **조직 및 주요 회의**

- (조직) 사무총국과 전기통신표준화국, 전파통신국, 전기통신개발국 등 3개의 부문(Bureau)으로 구성



※ 현 ITU 고위 선출직 현황: 사무총장(하마둔 두레/말리), 사무차장(홀린 짜오/중국), 표준화국장(말콤 존슨/영국), 전파통신국장(프랑스와 랑시/프랑스), 개발국장(브라히마 사노우/브루키나파소)

- **(전권회의, Plenipotentiary Conference)** 회원국의 장관급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위급 의사결정기구로서, 매 4년마다 3주간의 일정으로 개최
 - 향후 4년간의 ITU 전략과 정책, 예산 등 중요사안 및 글로벌 ICT 주요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출직과 이사국을 선출
- ※ 2010년 멕시코 전권회의에서는 사이버보안, ICT와 기후변화, 온라인 아동보호, ICT 발전지수,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균등접근권, 위성망과 전파통신망의 보호 등에 관한 의제를 논의함
- **(이사회, Council)** 전권회의에서 선출된 이사국이 참가하여 매년 1회 개최되며 연간 ITU 사업 계획과 예산 및 결산 등을 승인

<ITU 이사국 현황 : 5개 권역별로 전권회의에서 선출>

| 지역 | 회원국 | 이사국(2011 ~ 2014) | |
|-----------------|-------|------------------|--|
| A지역 (미주) | 35개국 | 9개국 | 멕시코, 브라질, 캐나다, 아르헨티나, 쿠바, 베네수엘라, 미국,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
| B지역 (서유럽) | 33개국 | 8개국 |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웨덴, 터키, 그리스 |
| C지역 (동유럽) | 21개국 | 5개국 | 러시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 |
| D지역 (아프리카) | 54개국 | 13개국 | 이집트, 케냐, 알제레아, 모로코, 가나, 튀니지, 남아공, 말리, 부르키나파소, 나이지리아, 르완다, 세네갈, 카메룬 |
| E지역 (아시아태평양) | 50개국 | 13개국 |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태국, 호주, 인도, 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필리핀 |
| 총 합 | 193개국 | 48개국 | |

- **(부문별 회의)** 각 부문별 업무 추진을 위해 세계회의, 지역회의, 자문반, 연구반·작업반 회의 등을 개최

□ **우리나라 활동사항**

- **가 입** : 1952. 1. 31(북한은 1975. 9. 24 가입)
- **주요사항**
 - 1989년 이사국으로 피선된 이후 현재 6선 이사국
 - 2010년 전권회의(PP-10)에서 차기(2014년) 전권회의(PP-14) 유치 성공

2012. 9.12.(수)

보도자료

2012년 9월 12일(수)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전파기획관 주파수정책과 최준호 과장(☎750-2270)
주파수정책과 이윤호 서기관(☎750-2271) lyho@kcc.go.kr

세계전파통신회의의 준비를 위한 아·태지역 전파통신회의(APG-15) 의장단 진출

- APG-15 부의장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위규진 본부장,
Working Party1(이동통신 분야)의장에 전파연구원 김경미 연구관 선출 -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는 2015년 11월 개최 예정인 세계전파통신회의(WRC-15)에 아태지역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아태지역 세계전파통신회의의 준비그룹(APG-15)” 제1차 회의를 열고, 동 그룹을 이끌어 나갈 의장단 구성을 완료했다.

※ **APG(Aisa-Pacific Telecommunity Conference Preparatory Group)** :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서 아태지역의 공동대응을 위한 APT 38개 회원국의 사전준비회의로 WRC-15('15.11)까지 총 5차례의 회의 개최 예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된 APG-15 회의에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위규진 본부장이 APG 총회 부의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 김경미 연구관이 이동통신 추가 주파수 확보 및 재난·재해 등 공공주파수 등 핵심의제를 다루는 Working Party 1 의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동위성통신분야 실무작업반 의장으로 (주)에이알테크놀로지

박세경 전무가 단독 추천되어 차기 APG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APG-15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가하고 있는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번회의에서 우리나라 전문가가 중요 의장단에 진출하여 우리나라가 아·태지역 주파수 표준을 주도하고,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를 위해 마련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추진에도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WRC-15을 준비하기 위한 이번 APG-15 1차 회의에는 APT 38개 회원국 대표 및 국제기구 등에서 25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향후 이동통신, 위성, 항공·해상용 주파수 확보 등 27개 WRC-15 의제에 대해 아·태지역 국가들의 주파수 주권확보를 위한 전략수립 및 대응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위규진 본부장>



<김경미 연구관>

<붙임> 세계전파통신회의 아태지역 준비그룹(APG-15) 의장단

세계전파통신회의 아태지역 준비그룹(APG-15) 의장단

□ APG-15 의장단

- APG-15 의장 (1명) : 알란 제이미슨 (뉴질랜드)
- APG-15 부의장 (2명)
 - 위규진 본부장 (한국), 카보우스 아라스테 (이란)
- APG-15 편집위원장 (1명) : 존 루이스 (뉴질랜드)
- WP의장 : APG-15에서는 WRC-15의 27개 의제를 다루기 위해 이슈별로 6개 작업반(Working Party)을 구성하여 운영

| 작업반 | 주요 내용 | WP 의장 |
|-----|--------------------|----------------|
| WP1 | 이동통신, 재난안전용 주파수 | - 김경미 연구관 (한국) |
| WP2 | 과학 관련 주파수 | - 키어 주 (중국) |
| WP3 | 항공·해상·무선탐지 주파수 | - 닐 미니(호주) |
| WP4 | 고정 및 이동위성 업무 | - 시아오양 가오 (중국) |
| WP5 | 위성 규제절차 | - 류네 아베 (일본) |
| WP6 | 차기 WRC 의제개발, 기타 이슈 | - 타기 사피 (이란) |

2012.9.14.(금)

보도자료

2012년 9월 14일(금)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허원석 과장 (☎710-6440)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성주영 연구사 (☎710-6463)

방통위 전파통신서비스 보호거리 계산방법에 관한 세계 첫 번째 ITU 국제표준 채택

- 한국 주도로 국제 전파 이용 환경 개선여건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이동형 원장)은 “우리나라가 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 표준으로 제안한 「30MHz 이하의 자기 유도식 시스템과 전파통신업무간 보호거리 계산방법」이 193개국의 회람을 거쳐 ‘12년 9월 14일에 최종 채택 되었다”고 밝혔다.

※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는 국제연합(UN)산하의 전기통신, 전파 통신, 위성통신, 방송 등의 국제정보통신 분야를 총괄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

※ 자기유도식 시스템은 전류의 변화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기장을 방출하는 특징을 갖는 시스템으로 유도가열기, RFID, 휴대폰 무선충전기 등이 대표적

이 국제표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U-사회 전파환경 보호를 위한 전자파 양립성 연구(과제책임자: ETRI 박승근)를 바탕으로 『한국ITU-R연구위원회』 산하 전파관리 연구반(반장: 공주대 이일규 교수)의 국제표준화 대응 활동의 성과로서, 국제 전파관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한 첫 번째 국제 표준이다.

그간 ITU 등 국제기구에서는 RFID를 비롯한 PDP TV,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이로부터 방출되는 자기장의 신호에 의해 기존의 전파통신 서비스와의 간섭 영향으로 인한 무선 통신 장애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에 고심해 왔다.

동 표준은 ① 유도가열장치(Induction heating device: 전기밥솥, 고주파 치료기 등), 자기유도 수동형 RFID 등과 같은 자기유도 시스템 등의 자기장 신호에 의한 기존의 전파통신 서비스(AM, 아마추어 서비스 등)를 보호하기 위한 이격거리 산출 ② 자기 유도 무선전력 전송기기가 주는 전파통신 서비스 영향 분석 ③ PDP TV, 전기철도 등 자기장 전파 발생원과 무선국 간의 전자파 양립성 평가를 위해 활용되어, 무선기기 간 간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향후 이 국제표준의 활용으로 사용자들이 이들 기기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와 서비스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 10. 11.(목)

보도자료

2012년 10월 11일(목) 19: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제협력관실 국제기구담당관 유대선 과장(☎750-1730)
 국제기구담당관 박명진 서기관(☎750-1731) sangbong@kcc.go.kr

한국, ICT 인프라 부문 세계 1위

- ITU, '12년 'ICT 발전지수' 평가 결과 발표 -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10월 11일 발표한 '12년 ICT 발전지수(IDI)에서 조사 대상 155개국 중 1위를 차지하였다.

ITU의 ICT 발전지수는 ITU 회원국 간의 ICT 발전정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한 지수로서, 국가 간 ICT 발전경로, 디지털 격차, 성장 잠재력 등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년도 ICT 발전지수 평가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 스웨덴이 2위를 차지하였고,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가 뒤를 이었다. 또한 영국은 9위, 미국은 15위였으며, 아시아 지역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 8위, 홍콩 11위, 싱가포르 12위, 마카오 14위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0위 내에 5개국만 랭크되었다.

ICT 발전지수는 ICT에 대한 접근성, 이용도, 활용력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ICT 활용정도를 나타내는 **이용도 및 활용력 부문에서 세계 1위**이며, 접근성(11위) 부문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부지표별로는 유선전화 회선 수(3위), 인터넷 접속가구 비율(1위), 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건 수(3위),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건 수(4위), 고등교육기관 총 취학률(1위) 등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였다.

< '12년 우리나라의 ITU ICT 발전지수(IDI) 세부지표 순위 >

| 부 문 | 세 부 지 표 | 지표순위 |
|------------------|-------------------------------------|------|
| ICT 접근성 (11위) | ① 인구 100명당 유선전화회선 수 | 3 |
| | ② 인구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 건수 ¹⁾ | 66 |
| | ③ 인터넷이용자 대비 국제인터넷대역폭 ²⁾ | 70 |
| | ④ 컴퓨터 보유 가구 비율 | 21 |
| | ⑤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 | 1 |
| ICT 이용도 (1위) | ⑥ 인터넷 이용자 비율 | 11 |
| | ⑦ 인구 100명당 유선 초고속인터넷 가입 건수 | 4 |
| | ⑧ 인구 100명당 무선 초고속인터넷 가입 건수 | 3 |
| ICT 활용력 (1위) | ⑨ 중등교육기관 총 취학률 | 40 |
| | ⑩ 고등교육기관 총 취학률 | 1 |
| | ⑪ 성인 문해율 | 16 |

1) 한국에서 사용 비율이 매우 낮은 선불식 SIM 개통 건수를 포함하여 평가

2) 한국은 외국에 비해 자국컨텐츠가 풍부하고 해외사이트 이용률이 낮아 국제인터넷 대역폭이 상대적으로 작음

금번 발표 결과로 그동안 우리 정부의 방송통신 인프라 고도화 정책 추진 등의 노력으로 인하여 한국의 ICT 환경이 세계 최고수준임이 확고해졌으며, 이는 UN 산하 전기통신 전문 국제기구인 ITU가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로 확인되었다 할 수 있다.

다만, 산업·규제환경 등 ICT 인프라 외적인 요소로 인해 우리 ICT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그간 일부 민간 국제지수 등을 통해 나온 바 있어 이번 평가에서 보여진 우리의 우수한 ICT 인프라를 잘 활용하여 국가 ICT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붙임 : 2012년 ICT 발전지수 주요국 순위 1부. 끝.

<참고> 용어설명

- ITU :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ICT :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붙임 >

'12년 ICT 발전지수 주요국 순위

| 종합 순위 | 국가명 | 지수값 | | 부문별 순위 | | |
|----------|-------------|------|------|--------|--------|--------|
| | | '12년 | '11년 | ICT접근성 | ICT이용도 | ICT활용력 |
| 1 | 한국 (-) | 8.56 | 8.45 | 11 | 1 | 1 |
| 2 | 스웨덴 (-) | 8.34 | 8.21 | 6 | 2 | 16 |
| 3 | 덴마크 (-) | 8.29 | 8.01 | 9 | 3 | 12 |
| 4 | 아이슬란드 (-) | 8.17 | 7.96 | 4 | 8 | 13 |
| 5 | 핀란드 (-) | 8.04 | 7.89 | 18 | 4 | 2 |
| 6 | 네덜란드 (↑1) | 7.82 | 7.60 | 10 | 9 | 24 |
| 7 | 룩셈부르크 (↓1) | 7.76 | 7.64 | 3 | 7 | 81 |
| 8 | 일본 (-) | 7.76 | 7.57 | 17 | 5 | 28 |
| 9 | 영국 (↑5) | 7.75 | 7.35 | 7 | 11 | 29 |
| 10 | 스위스 (↓1) | 7.68 | 7.48 | 2 | 13 | 41 |
| 11 | 홍콩 (↑1) | 7.68 | 7.39 | 1 | 17 | 48 |
| 12 | 싱가포르 (↓2) | 7.66 | 7.47 | 8 | 6 | 71 |
| 13 | 노르웨이 (↓2) | 7.52 | 7.39 | 12 | 16 | 14 |
| 14 | 마카오 (↓1) | 7.51 | 7.38 | 13 | 10 | 38 |
| 15 | 미국 (↑1) | 7.48 | 7.11 | 24 | 12 | 3 |
| 16 | 독일 (↓1) | 7.39 | 7.18 | 5 | 19 | 43 |
| 17 | 뉴질랜드 (↑1) | 7.34 | 7.03 | 22 | 15 | 7 |
| 18 | 프랑스 (↓1) | 7.30 | 7.08 | 14 | 14 | 35 |
| 19 | 오스트리아 (↑3) | 7.10 | 6.74 | 16 | 21 | 27 |
| 20 | 아일랜드 (↓1) | 7.09 | 6.99 | 21 | 18 | 25 |
| 21 | 호주 (-) | 7.05 | 6.75 | 20 | 23 | 10 |
| 22 | 캐나다 (↓2) | 7.04 | 6.87 | 23 | 20 | 19 |
| 23 | 벨기에 (-) | 6.89 | 6.60 | 19 | 25 | 18 |
| 24 | 에스토니아 (↑2) | 6.81 | 6.36 | 27 | 22 | 23 |
| 25 | 슬로베니아 (↓1) | 6.70 | 6.54 | 26 | 30 | 6 |
| 38 | 러시아 (↑2) | 6.00 | 5.61 | 36 | 38 | 21 |
| 78 | 중 국 (↑1) | 3.88 | 3.58 | 82 | 66 | 89 |
| 119 | 인도 (↓3) | 2.10 | 1.98 | 116 | 120 | 115 |

※ '12년 평가대상국은 총 155개국 (10개국이 추가되고 7개국이 제외됨, '11년은 152개국)

- 추가국: 세인트루시아, 통가, 투발루, 솔로몬제도, 미얀마, 콩고민주공화국, 말라위, 라이베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제외국: 몬테네그로, 아르메니아, 수리남, 키르기스스탄, 과테말라, 앙골라, 방글라데시

2012.10.26(금)

보도자료

2012년 10월 26일(금)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허원석 과 장 (☎710-6440)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이경희 연구관 (☎710-6460)

ITU 국제표준화 전문가 교육 개최

- 한국ITU연구위원회 참여 전문가의 국제 표준화 협상능력 제고 도모 -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이동형 원장)은 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ITU 표준화 활동 협상 기술 및 전문가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을 '12년 10월 30일(화) ~ 31일(수) 양일 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대회의실(B Room, 9층)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ITU연구위원회를 운영·관리하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주관하고 ITU 전기통신표준국(TSB)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교육에는 前 ITU-T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SAG) 의장 이었던 Mr. Gary Fishman을 비롯한 국내·외 최고의 표준화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ITU 등 국제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외 전문가의 “경험 및 Know-How를 전수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우리나라 방송통신 표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국제표준화 협상능력 배양이 필요한 방송통신 전문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라고 밝혔다. 끝.

[붙임1]

‘12년도 ITU 국제표준화 전문가 교육

□ 개 요

- 일 시 : 2012년 10월 30일(화) ~ 10월 31일(수)
- 장 소 : TTA 대회의실 B (9층)
- 참석대상 : 한국ITU연구위원회 연구위원

□ 주요 내용

- ITU 표준화 활동 협상 기술 및 표준사례
- ITU-T 라포처 및 에디터를 대상으로 한 표준화 고급 교육(국외 전문가 초청)
- ※ ITU 국제표준화 전문가의 경험을 연구위원에게 공유하여 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함

□ 프로그램

[1일차 : 2012.10.30.(화)]

| 시 간 | 내 용 | 좌장/발표자 |
|-------------|---|-----------------------------------|
| 09:00~09:30 | 등 록 | |
| 09:30~10:00 | 개회 및 한국ITU연구위원회 활동 소개 | 이경희 연구관 (RRA) |
| 제1세션 | ITU 표준화 협상 기술 (1) | 이경희 연구관 (RRA) |
| 10:00~11:00 | 표준(권고)의 제·개정 과정과 협상 | 김경미 연구관 (ITU-R SG6 부의장) |
| 11:00~12:00 | 국제 표준화 회의 참석 및 활동 요령 | 박기식 박사 (ITU-T SG3 의장) |
| 12:00~13:30 | 중 식 | |
| 제2세션 | ITU 표준화 협상 기술 (2) | 김대중 부장 (TTA) |
| 13:30~14:20 | 표준화를 위한 "Consensus" 기술 | Gary Fishman (전 ITU-T TSAG 의장) |
| 14:20~15:10 | 한국의 표준화 성공 및 실패 사례 | 위규진 본부장 (ITU-R WP5D 부의장) |
| 15:10~15:30 | 휴 식 | |
| 제3세션 | General-Level Tutorial for Rapporteurs and Editors (1) | 박정식 부장 (TTA) |
| 15:30~16:00 | Rol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Rapporteurs and Editors | Gary Fishman (전 ITU-T TSAG 의장) |
| 16:00~16:15 | Rights and Obligations of Member States, Sector Members, Associates, Academia participants, invited experts | |
| 16:15~16:45 | Rules of procedure for Rapporteurs (including managing meetings, General Rules, best practices) | |
| 16:45~17:00 | 휴 식 | |
| 17:00~17:15 | IPR : Patents, Software Copyrights, Marks | Gary Fishman (전 ITU-T TSAG 의장) |

| 시 간 | 내 용 | 좌장/발표자 |
|---------------|--|--------|
| 17:15~18:00 | Decision-making and Approval Procedures : soft and hard decisions | |
| 18:00 ~ 20:00 | 만찬 | |

[2일차 : 2012.10.31.(수)]

| 시 간 | 내 용 | 좌장/발표자 |
|-------------|---|-----------------------------------|
| 제4세션 | High-Level Tutorial for ITU-T Rapporteurs and Editors (2) | |
| 09:30~10:00 | Overview of relevant WTSA Resolutions and A-Series Recommendations: A Rapporteur and Editor Perspective | Gary Fishman (전 ITU-T TSAG 의장) |
| 10:00~10:15 | Organizing meetings | |
| 10:15~10:30 | Role of the Secretariat | |
| 10:30~10:50 | Q&A | |
| 10:50~11:35 | Outputs : Reports, Recommendations, Handbooks, Liaisons learn about the options you have to document your standardization work, why you might pick one over another and how to get them approved. | |
| 11:35~12:00 | Writing Reports learn how to write a good report for your meeting participants and to satisfy ITU-T requirements for Rapporteurs | |
| 12:00~13:30 | 중식 | |
| 제5세션 | High-Level Tutorial for ITU-T Rapporteurs and Editors (3) | |
| 13:30~14:10 | Drafting Recommendations Every standards body has its own standards for writing and formatting its published results. Don't follow those requirements and you will have a troubled standards life. Know them and everyone will be happy with the high quality of your work. You will work faster, cheaper and better. | Gary Fishman (전 ITU-T TSAG 의장) |
| 14:10~14:40 | Editing and Revising Draft Documents Learn what Editors can do and what they cannot do. Learn the ITU-T best practices for editing, revising and publishing any ITU-T document. | |
| 14:40~15:00 | 휴식 | |
| 제6세션 | High-Level Tutorial for ITU-T Rapporteurs and Editors (4) | |
| 15:00~16:00 | Interactive Discussion Session 1 we will practice how you will actually assist bringing your draft standards through the steps of the Traditional Approval Process (TAP), from simple to increasingly complex situations. You will break into small groups to discuss each situation and propose a solution that a Study Group should use, with reference to the appropriate rules. We will compare your proposals and hear the real-world solutions from actual TAP case studies. | Gary Fishman (전 ITU-T TSAG 의장) |
| 16:00~17:00 | Interactive Discussion Session 2 we will practice how you will actually assist bringing your draft standards through the steps of the Alternative Approval Process (AAP), from simple to increasingly complex situations. You will break into small groups to discuss each situation and report a solution that a Study Group should use, with reference to the appropriate rules. We will compare your proposals and hear the real-world solutions from actual AAP case studies. | |
| 17:00~17:30 | 수료식 및 기념촬영 | 이경희 연구관 (RRA) |

[붙임2]

강사진 소개

Dr. Gary Fishman, former TSAG Chairman, USA



Gary Fishman has participated in and held leadership positions in standards bodies for over 26 years, including the Chair of the ITU-T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TSAG), Vice Chair of the ITU Council's ITU-2000 Working Group on Reform, and a member of World Standards Cooperation comprising the top management of ISO, IEC and ITU.

He has presented numerous seminars and workshops to regional and national bodies on capacity building fo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Mr. Fishman has served on policy bodies of the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and he is a founding member and currently Vice Chairman of the Board of the US ITU Association (USITUA).

Mr. Fishman is currently President of Pearlfisher International, a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consulting company. His previous work experience with Bell Laboratories, AT&T, Lucent Technologies and Alcatel-Lucent includes digital transmission systems, system engineering, optical fiber, economic studies, communication satellite services, regulatory tariff filings, marketing and technical standardization. His degrees in Electrical Engineering are from the City College of NY, Columbia University and New York University.

Dr. Ki shik PARK (ETRI 표준연구센터 전문위원)

INTERNATIONAL ACTIVITIES



- He has been working for ETRI for more than 20 years carrying out various important roles such as Vice President of IT Services Research Div., Director of Protocol Engineering Center. Currently, he is working as a Principal Researcher of ETRI for Technology Strategy Research Division.

• All of above experiences gave him opportunities to obtain not only deeper and wider understanding of practical info-communications technologies but also management skills. Furthermore, Dr. Park has extensiv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related experiences in various standardization rules and procedures as well as substantial activities which are critically important to successfully carry out the role of the ITU-T Chairmanship in the future years.

| | |
|-------------------|--|
| 2004.10 - present | Chairman, ITU-T SG 3 (Int'l Telecom Tariff & Charging) |
| 2004.05 | Chairman, The 9thGSC (Global Standards Collaboration) conference |
| 2003.08 - present | Member of Organization Committee, Int'l IPv6 Forum |
| 2002.04 - present | Manager, W3C Korean Office |
| 1996.10 - 2004.10 | Vice Chairman, ITU TSAG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Chairman, TSAG/WP3 (Electronic Document Handling) |
| 1998.02 - present | Advisory Board Member, ASTAP (APT Standardization Program) |
| 1998.10 | Moderator, Int'l Wireless Communication Informational Session of Asia-Oceanic Region in ITU Plenipotentiary Conference (Minneapolis, MN, USA) |
| 1991.03 - 1993.07 | Secretariat, ISO/IEC JTC1 SC21 Korean Committee, etc. |

Dr. Kyu-Jin WEE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 본부장)



INTERNATIONAL ACTIVITIES

- Participation at various ITU-R meetings of Working Parties, Task Groups, Study Groups, Conference Preparatory Meetings since 1991
 - Serving as a vice chairman of the Working Party 8F, as the chairman of a Working Group of the WP 8F and as a vice chairman of Study Group 5 since RA-07.
- Participation at Radio Assembly (2000, 2003 and 2007),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1995, 1997, 2000, 2003 and 2007) and Plenipotentiary Conference 2010.
 - Serving as the vice chairman of Committee 7 of WRC-07 and as the chairman of Committee 3 of the Plenipotentiary Conference 2010.

Dr. Kyung-Mee Kim (국립전파연구원 공업연구관)



INTERNATIONAL ACTIVITIES

- Since 2000, Ms. Kyung-Mee Kim has participated in meetings of ITU-R SG 6 including Working Parties as the head of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as nominated to a Vice-Chair of ITU-R SG 6 at Radiocommunication Assembly in 2007.
- She actively involved in the standardization of video quality metrics within WP 6Q, disaster warning broadcasting within WP 6E and mobile multimedia broadcasting systems within WP 6M. Currently sh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development of "Transition Report from Analogue to digital Broadcasting." She had been a vice-chair of WP 6Q from 2003 to 2007. She had arranged successfully to convene meetings of Working Parties of ITU-R SG 6 in Seoul Korea in August/September 2006.
- Ms. Kim has attended meetings of Radiocommunication Assembly and WRCs. In addition she has been worked for the preparation of APT countries on WRC agenda item as a chairman of drafting group and a co-coordinator who represents APT position.
- On the basis of her extensive working experience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services, Ms. Kim will be able to make a valuable contribution to ITU-R SG 6.

[붙임3]

한국ITU연구위원회 개요

□ 일반 현황

- 근거 법령 :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6항제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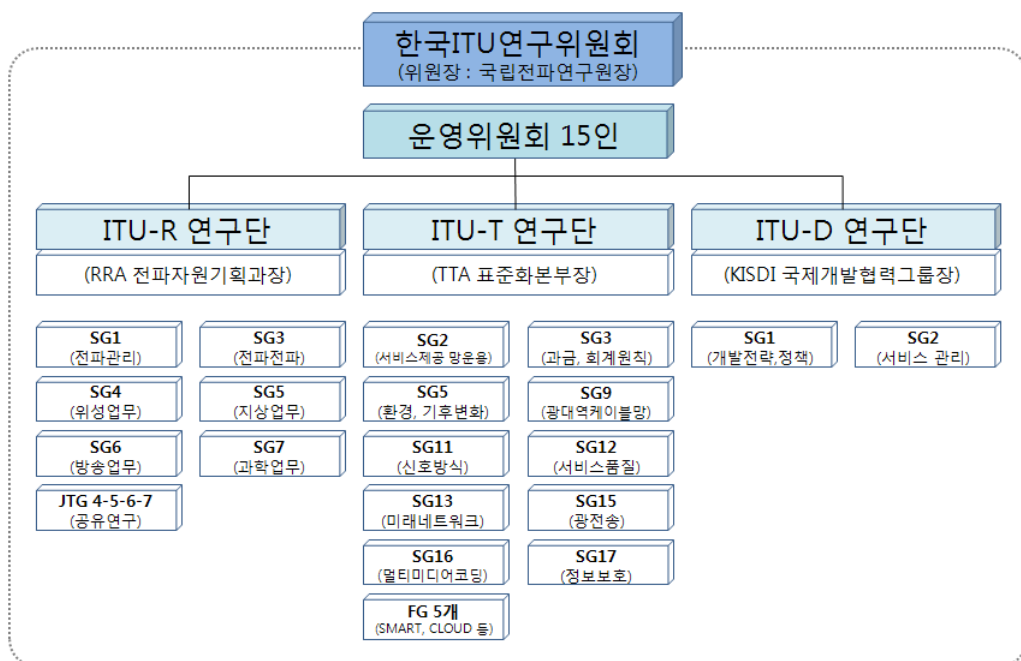
* 제14조제6항제6호 : 한국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연구위원회의 운영

○ 조직 현황

- 운영위원회 : 당연직 위원 4명(국립전파연구원장[위원장], 연구단장 3명) 및 위촉직 위원 11명(KCC 4명, RRA 2명, ETRI 2명, 학계 3명)
- 연구위원 : 총 454명(R 173명, T 247명, D 34명)

□ 주요 구성

- 한국ITU연구위원회는 전파통신(ITU-R), 전기통신표준화(ITU-T) 및 전기통신개발(ITU-D) 분야별 각계의 의견수렴 및 대응방안 연구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2012.11.18.(일)

보도자료

2012년 11월 18일(일)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방송통신녹색기술팀 김정기 팀장 (☎750-2190)
 방송통신녹색기술팀 조정득 사무관(☎750-2195)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허원석 과장 (☎710-6440)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이경희 연구관(☎710-6460)

방통위, ICT 국제표준화 올림픽 대표단 파견

-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12) 참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전기통신분야 최고 공식표준화 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12)에 이동형 국립전파연구원 원장을 수석대표로 산·학·연·관의 전문가 30여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가한다.”고 밝혔다.

※ WTSA: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이달 20일부터 열흘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12)는 ICT 생태계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기업 및 국가 간의 표준특허 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100여 개 국에서 1,00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기통신분야(ITU-T)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매 4년마다 개최되며, 이번 총회에서는 ITU-T 표준연구반 조직관리, 표준연구반 프로그램 및 작업결과물(표준안) 승인, ITU결의 및 권고 제·개정, 연구반(SG) 및 자문반(TSAG) 활동을 수행할 의장단 선출 등 향후 4년간의 ITU-T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 SG: Study Group, TSAG: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우리 대표단은 금번 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ICT 기술의 활용 방안 및 한글자판의 국제표준화 등을 제안하고, 표준화 관련 주요의제에 적극 대응함과 아울러, 국내 민관 공동연구결과인 “ICT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방법”이 ITU 공식보고서로 채택됨에 따라 총회 현장에서 이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ITU-T 분야별 국제표준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할 연구반(SG) 및 자문반(TSAG) 의장단 선출과 관련하여 국가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사전 등록한 11개 분과별 의장단 후보자 중 최소한 현재 수준의 의장단(9석)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2014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ITU 전권위원회에 대한 국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방통위 라봉하 융합정책관은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진출과 우리 제안기술들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개도국과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등 글로벌 ICT 리더 국가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 : 참고자료 1부. 끝.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12) 참가 계획

□ 개 요

- ITU 표준화총회(WTSA-12)에 산·학·연·관 전문가로 대표단을 구성 참가하여 주요 의제 대응 및 의장단 진출 등 추진

<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12) 개요 >

- 행사명 :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 주 최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임 무 : ITU-T 표준연구반 조직 관리, 표준연구반 프로그램 승인, ITU-T 결의 제 개정, 작업결과물(표준안)에 대한 승인 등 (ITU 협약 제13조 및 20조)
- * 매4년 개최되며, 100여개 ITU 회원국 및 민간 회원사 등 1,000여명 참석

□ 참가계획

- 기 간 : 2012. 11. 20(화) ~ 11. 29(목), 10일간
- 장 소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World Trade Center
- 대표단 : 방통위, RRL, TTA, ETRI 등 11개 기관 34명(불임참조)
- * 국립전파연구원장(수석), 녹색기술팀장(교체수석)

□ 주요활동

- (의제 대응) 한글자판 표준의 국제표준화 제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ICT 기술의 활용방안 제안 등 주요의제 대응
 - ※ 국내 민·관 공동연구결과인 “ICT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방법”이 ITU공식보고서로 채택되어 WTSA-12 현장 배포 예정
- (의장단 진출) 의장단 11석(의장3, 부의장8) 후보 등록 및 다수 의장단 보유국 수성 목표로 득표활동 전개(현재 9석으로 4위)
- (전권위 홍보) ITU전권위원회(부산) 개최 안내 및 홍보물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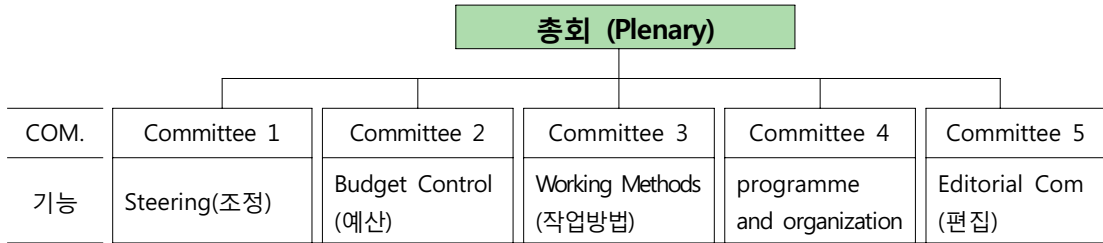
< 참고자료 >

□ WTSA-12 한국대표단 구성(11개 기관 34명)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요 역할 | 비 고 |
|----------------------------------|--------|-----|---------------------------------|--------|
| 방송통신 위 원 회 (국립전파 연 구 원) | 고위공무원 | 이동형 | o 한국 대표단의 활동기획 및 조정 | 수석대표 |
| | 기술서기관 | 김정기 | o ITU-T 표준화 정책 결정 | 교체수석 |
| | 기술서기관 | 허원석 | o 수석대표 보좌 및 의장단 선거 대응 | 교체수석 |
| | 서기관 | 이도규 | o 수석대표 보좌 및 전권회의 홍보 | |
| | 공업연구관 | 정삼영 | o 기후변화 이슈 대응 | |
| | 공업연구관 | 이경희 | o 수석대표 보조 및 대응 총괄 | |
| | 방송통신주사 | 진상환 | o ITU-T 표준화 이슈 대응 | |
| | 공업연구사 | 성주영 | o 연구반 별 주요 이슈 대응 | |
| | 공업연구사 | 김봉석 | o E.161 결의 제정 대응 | |
| | 방송통신서기 | 이종일 | o 연구반 별 주요 이슈 대응 | |
| | - | 조단우 | o 전권회의(PP-14) 홍보 | PP 준비팀 |
| | - | 엄진우 | o 전권회의(PP-14) 홍보 | PP 준비팀 |
| 제네바대표부 | 1등 서기관 | 이진수 | o 수석대표 보좌 및 의장단 선거 대응 | |
| 한국정보통신 기술협회 | 협회장 | 이근협 | o WTSA/GSS 관련 국제 표준화 협력 | |
| | 본부장 | 위규진 | o GSS 및 개도국 이슈 총괄 | |
| | 단장 | 이근구 | o ITU C&I 이슈 | |
| | 부장 | 박정식 | o ITU 작업방법 이슈 | |
| | 부장 | 김영화 | o ITU 사이버보안 이슈 등 | |
| | 선임 | 백종현 | o C&I 이슈, 대표단 지원 등 | |
| | 선임 | 오홍룡 | o ITU 사이버보안 이슈 등 | |
| 한국전자통신 연 구 원 | 사원 | 이민아 | o ITU-T 차기 회기 예산 등 | |
| | 연구위원 | 박기식 | o TSAG 의장 후보 및 기후변화 이슈 대응 | |
| | 센터장 | 함진호 | o 기후변화 이슈 대응 | |
| | 연구위원 | 이병남 | o 부의장 후보 및 작업방법 이슈 | |
| | 팀장 | 김형준 | o 미래인터넷, JCA-IoT 이슈 | |
| | 팀장 | 강신각 | o SG11 부의장 후보 | |
| KISDI | 책임 | 류정동 | o SG16 부의장 후보 및 MPLS 이슈 대응 | |
| | 연구원 | 김애연 | o 개도국 이슈, WSIS 이행 점검 | |
| KAIST | 연구위원 | 이재섭 | o WTSA-12 COMB 부의장 및 SG13 의장 후보 | |
| 한국외대 | 교수 | 정성호 | o SG16 부의장 후보 | |
| 순천향대 | 교수 | 염홍열 | o SG17 부의장 후보 | |
| 나래텔레콤 | 연구위원 | 이홍림 | o 전권회의 결의, 개도국 이슈 등 | |
| 부산시 | 사무관 | 신영식 | o 전권회의(PP-14) 홍보 | PP 준비 |
| 벡스코 | 컨벤션팀 | 박종혁 | o 전권회의(PP-14) 홍보 | PP 준비 |

□ WTSA-12 조직

- 총회, 5개 위원회로 구성, 총회와 COM 1은 개최국이 의장직 수행
 - 5개의 COM은 ITU의 6개 공식 언어(영어, 프랑스어,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대표로 부의장 구성



※ 의장단관련 ITU 기본원칙 : 지역안배 및 개도국의 참여를 독려하며, 전 회의기간 동안 참여

□ 한·중·일 의장단 후보 출마 현황

| 구 분 | 후 보 국 | | 비 고 |
|---------------|-------|------------|----------------|
| | 의 장 | 부의장 | |
| SG2(번호,망관리) | | 한국, 중국 | 안근영 (국립전파연구원) |
| SG3(과금,회계) | 일본 | 한국 | 이병남 (ETRI) |
| SG3 RG(지역그룹) | 한국 | 일본 | 이병남 (ETRI) |
| SG5(환경,기후변화) | | 한국, 중국 | 정삼영(국립전파연구원) |
| SG9(광대역 케이블등) | | 중국, 일본 | - |
| SG11(신호방식) | 중국 | 한국, 일본 | 강신각(ETRI) |
| SG12(성능,품질) | | 한국, 중국, 일본 | 김형수 (KT) |
| SG13(미래네트워크) | 한국 | 중국, 일본 | 이재섭 (KAIST) |
| SG15(광통신 등) | | 한국, 중국, 일본 | 류정동 (ETRI) |
| SG16(멀티미디어) | 일본 | 한국, 중국 | 정성호 (한국외국어대학교) |
| SG17(정보보안) | | 한국, 중국, 일본 | 염홍열 (순천향대학교) |
| TSAG | 한국 | 중국, 일본 | 박기식 (ETRI) |

※ 밑줄은 연임 후보

□ WTSA-12 프로그램

< WTSA-12 프로그램 >

| 일 정 | 오전(9:30 ~ 12:30) | 오후(14:30 ~ 17:30) | 오후(18:00 ~) |
|---|--|--|---------------|
| 11.19.(月) | Global Standardization Symposium(세계 표준 화심 포지움) Informal HoD Meeting | | |
| 11.20.(火) | 09:30 - HoD meeting | 14:30 - PL (2) | 18:00 - 제1위원회 |
| | 11:00 - Opening | | |
| | 11:30 - PL (1) | | |
| 11.21.(水) | 제2위원회, 제4위원회 | 제3위원회 | |
| 11.22.(木) | 제4위원회 | 제3위원회 | |
| 11.23.(金) | 제4위원회 | 14:30 - HoD meeting | 18:00 - 제1위원회 |
| | | 16:00 - PL (3) | |
| 11.26.(月) | 제3위원회 | 제4위원회 | |
| 11.27.(火) | 제2위원회, 제3위원회, 제5위원회 | 제4위원회, 제5위원회 | |
| | | 16:30 - HoD meeting | |
| 11.28.(水) | PL (4), 제5위원회 | PL (5) | |
| 11.29.(木) | PL (6) | PL (7), 폐회식 | |
| o Plenary meeting : 종합회의 o 제1위원회 : 운영위원회 o 제2위원회 : 예산 조정위원회 o 제3위원회 : ITU-T 작업 방법위원회 | | o 제3위원회 : ITU-T 작업방법위원회 o 제4위원회 : 작업프로그램 및 구조위원회 o 제5위원회 : 편집위원회 | |
| ※ 총회 관련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추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 | |

□ 회의진행 및 의결방식

- o 작업계획의 준비, WTSA-12 의장단 지명 및 운영 논의를 위해 수석 대표 회의 개최
- o 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보고서를 본 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
- o 의결 안건은 참여국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할 경우 가결 처리

□ 주요 의제

○ ITU-T 연구반 및 의장단 선출

- 차기 4년의 연구회기('13~16) 동안 연구반 활동을 이끌어 갈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
- 우리나라는 의장 3석, 부의장 8석 등 11명이 입후보*(현재 의장3석, 부의장 6석)

* 의장 후보 : SG 13(연임), SG3관련 지역그룹(연임), TSAG(신규)

부의장 후보 : 신규(SG2, SG3, SG5, SG11, SG15), 연임(SG12, SG16, SG17)

○ 한글자판 표준의 국제표준화 추진

- 이동통신기기 문자판 입력방식 국제 표준화를 위하여, 권고 E.161에 한글자판 추가 개정 제안 (현재 영어만 되어 있음)

○ 정보통신 기술과 기후변화 결의 73 (개정)

-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ICT와 ITU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연구하고, 모든 연구반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 등 결의

○ ICT기기의 적합성 및 상호 운용성 시험, 개발도상국 지원, 미래의 ITU 마크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결의 76 (개정)

- ITU-T 권고에 의해 개발된 ICT기기의 적합성과 상호운용성 확보 및 개도국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
- 2008년 WTSA에서 결의로 채택된 이후, 적합성 DB구축문제 등의 필요성 및 실효성에 있어 개도국의 요구와 선진국이나 산업계의 비용부담으로 금번 WTSA에서도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



2012.11.30(금)

보도자료

2012년 11월 30일(금)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방송통신녹색기술팀 김정기 팀장 (☎750-2190)
 방송통신녹색기술팀 조정득 사무관(☎750-2195)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허원석 과장 (☎710-6440)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 이경희 연구관(☎710-6460)

한국, ICT 국제표준화 주도국 위상 확보

- 106개 참가국 중 최다 10석 의장단 진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지난 11월 20일부터 29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ITU 국제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12)에서 ITU-T의 연구반 의장 2석 및 부의장 8석 등 총 10석의 의장단을 확보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의 선도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WTSA :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 ITU-T 의장단 진출 현황 >

| 구 분 | 성 명 | 구 분 | 성 명 |
|------------------------|-------------------|-------------------------|--------------------|
| SG2(번호 및 망관리) 부의장 | 안근영 (KCC) | SG12(성능,품질) 부의장 | 김형수 (K T) |
| SG3(과금 및 회계) 부의장 | 이병남 (ETRI) | SG13(미래네트워크) 의 장 | 이재섭 (KAIST) |
| SG3 RG(지역그룹) 의장 | 이병남 (ETRI) | SG15(광통신 등) 부의장 | 류정동 (ETRI) |
| SG5(기후변화) 부의장 | 정삼영 (RRA) | SG16(멀티미디어) 부의장 | 정성호 (한국외대) |
| SG11(신호방식) 부의장 | 강신각 (ETRI) | SG17(정보보안) 부의장 | 염홍열 (순천향대) |

이번 총회에는 106개국 천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ITU-T 연구반의 의장단 선출을 비롯하여 차기 연구회기(2013~2016) 동안의 전기통신 표준화 활동을 위한 ITU-T 절차에 관한 규정 등 49개의 결의 개정, ITU-T 작업방법 내 협력강화 등 11개 신규결의 제정, 10개 연구반 사이의 업무조정 등이 이루어졌다.

이번 총회에 우리나라 대표단은 한글자판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기존 라틴 알파벳 문자 전화기 키패드 표준(E.161) 외에 각 국의 다른 문자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고, 사이버 침해대응을 위한 국가 간, 지역 간 조정된 활동을 요구하고 신규 사이버 보안 이슈에 대한 표준 등을 제안하여 총회에서 향후 개발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한·중·일이 공조하여 인터넷의 백본망 등에서의 대량의 트래픽 처리를 고속으로 처리 및 관리하기 위한 인터넷 IP 트래픽 등의 제어기술(MPLS)을 표준으로 제정하였고, 소프트웨어 정의네트워킹(SDN) 표준화를 촉구하는 결의를 이끌어 내었다.

동 결의에 따라 ITU를 중심으로 SDN의 요소 기술에 관한 표준 개발이 가속화되게 되었으며, 미래 통신망에 대한 한국의 선도적 표준화 노력의 결실이 예상된다.

※ SDN(Software Defined Networking): 인터넷상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대용량 멀티미디어 데이터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차세대 스마트 인터넷기술

한국대표단 수석대표인 이동형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금번 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에서 한국이 회원국 중 최다인 10석의 의장단을 확보함으로써 우수한 우리의 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되는데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하였다. 끝.

붙임 1 : 의장단 약력

붙임 2 : MPLS-TP 표준 참고자료

〈 불임 1 〉

연구반 의장 및 부의장 약력

| | 성 명 (소속) | ITU-T 의장단 | 주요활동 |
|---|------------------------|--|---|
|  | 안근영 (방송통신위원회) | SG2(번호 및 망관리) 부의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Duke 대학교 박사 (1986-1989) o ETRI (1986-1989) o KCC 네트워크 정책과장 (1994-2007) o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2011-2012) |
|  | 이병남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 SG3(과금 및 회계) 부의장 SG3 RG(지역그룹) 의 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KAIST 산업공학과 박사(1994) o ITU-T TAS Group 부의장('04~'08) o ITU-T SG3 RG-AO 의장('08~현재) o ASTAP PRS(정책규제전략) 워킹그룹 의장('05.11~현재) o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방문교수('95~'97) |
|  | 정삼영 (국립전파연구원) | SG5(기후변화) 부의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한양대 전자전파공학과 박사 o ASTAP ICT & 기후변화 의장('09~) o 국립전파연구원 녹색인증제도과 녹색표준 담당('10~현재) |
|  | 강신각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 SG11(신호방식) 부의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충남대학교 전자공학과 박사 o ITU-T SG7, SG17 라포처 ('97~'08) o ITU-T SG11 Q.15 (멀티캐스트) 라포처 ('09~) o ITU-T SG13 Q.19 (분산서비스 네트워킹) Associate 라포처 ('09~) |
|  | 김형수 (K T) | SG12(성능,품질) 부의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건국대학교 전자공학과 박사 o ITU-T SG13 Q.4 (서비스 품질) Associate Rapporteur (현) o ITU-T SG12 Q.17 (IP 성능) Associate Rapporteur (현) |

| | | | |
|---|------------------------|---------------------|---|
|  | 이재섭 (KAIST) | SG13(미래네트워크) 의 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U-T SG 13 (NGN 분야) 부의장 겸 WP1의장 ('04~'08) ○ ITU-T FG NGN 의장 ('04~06) ○ ITU-T 'FG IPTV' (Focus Group on IPTV) 부의장('06~'07) ○ ITU-T SG13 (NGN 및 Future Network 분야) 의장 ('08~'12) |
|  | 류정동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 SG15(광통신 등) 부의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뉴욕 Polytechnic Institute of NYU 전기및전자공학과 박사 ○ 미국 뉴저지 Bell-Labs, Lucent Technologies (1999-2004) ○ ETRI (2004-현재) ○ ITU-T SG15 Q9 에디터 (G.8131, G.8132) ('09~) |
|  | 정성호 (한국외대) | SG16(멀티미디어) 부의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조지아공대 전기및컴퓨터공학과 박사 ○ ITU-T SG16 부의장('08~) ○ ITU-T WP2/16 의장('08~) ○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객원교수('07~'08) |
|  | 염흥열 (순천향대) | SG17(정보보안) 부의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박사 ○ ITU-T SG 17 (정보보호) 부의장('09~) ○ ITU-T SG 17 WP 2(응용보안) 의장('09~) ○ 한국정보보안산업표준 포럼 의장('12~) ○ 정통부 정책자문단 정보보호PM('06.~'08.2) |

< 붙임 2 >

인터넷 IP 트래픽 등의 전달기술(MPLS-TP) 표준

□ 개 요

- 인터넷이 일반 전기통신망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난 뒤 '08년도부터 인터넷 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IETF와 전기통신망을 담당하고 있는 ITU-T SG15(광 전송 및 접속망)가 협력그룹(JWT)을 통한 MPLS-TP에 대한 표준개발을 시작
 - ※ MPLS-TP(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 Transport Profile: 멀티 프로토콜 레이블 스위칭 – 전달 프로파일) 인터넷의 백본망 등에서의 대량의 트래픽 처리를 고속으로 처리 및 관리하기 위한 기술
 - ※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인터넷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인터넷 표준규격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 IAB(Internet Architecture Board)의 조사위원회
- MPLS-TP 관련 장비 및 서비스 등의 운용관리 부분의 기반 솔루션의 방법이 충돌하면서 표준화 이해 당사자 국가의 기술 적용 및 장비 준비여부에 따른 나라별 입장이 이원화되었고, APT WISA-12 대응준비회의에서 이에 대한 공동의견을 준비

□ 주요경과

- 2005년 : ITU-T SG15에서 IETF의 연결 지향적 패킷 전송망의 MPLS 전송망을 활용한 OAM(운용유지보수) 및 보호 기능을 첨가한 T-MPLS 표준화 시작
- 2007년 : T-MPLS 망이 기존 MPLS망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주춤
- 2008년 : ITU-T SG15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IETF와 ITU-T가 기존 MPLS 아키텍처에 부합하는 패킷 전송 기술로서 MPLS-TP란 이름의 표준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하면서 JWT를 구성하여 진행
- 2010년 : MPLS-TP OAM 부분에서 장비 제조업체 및 망운용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IETF 및 ITU-T 전송망 OAM 등 표준화 대립
- 2011년 : ITU-T 와 IETF 사이의 기술적 논쟁에 이어 정치적 분쟁의 결과 ITU-T 기반의 G.8113.1 표준(안)과 IETF 기반의 G.8113.2 표준(안)으로 양분

□ 주요국 입장

-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시스코 및 주니퍼 등 자국내 기술네트워킹 솔루션을 세계적으로 선점하여 대부분의 인터넷 전송망 시장을 장악하면서 IETF 기반의 MPLS-TP(G.8113.2)의 표준을 주장
 - Toolkit 중심으로 고쳤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 및 기존 전송망 검증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단점을 보유
- (중국, 일본, 한국, 이탈리아 등) 화웨이, 코위버 및 ETRI 등 후발네트워크 솔루션 업체들의 국가들은 ITU-T의 전통적인 전송망의 체계에 MPLS-TP(G.8113.1)의 표준을 개발하여 시장점유 시도
 - 실제 망운용을 통해 검증된 이더넷 OAM(Y.1731) 기반은 사용자의 편리성과 전송망 시장접근이 용이한 장점을 보유

□ 국내검토의견 및 대응결과

- 국내ICT관련 산업은 인터넷망 등의 기반 전송망의 패킷 서비스 및 연결 지향적 전송기능 요구가 증대 되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MPLS-TP 필요
- 현재 대부분의 국내 네트워크 기반은 IETF의 솔루션 장비들이 들어와 있으나, 신규 서비스 증가로 SKT 모바일 등 소수 백홀망에 G.8113.1 기술이 일부 적용되어 사용 중
- 금년도 ITU-T SG15(9.10~22)회의에서 IETF 쪽의 지지국가들도 G.8113.2의 표준을 G.8113.1 과 더불어 WSA-12에 함께 상정에 합의
- 전략적으로 중국이 “MPLS-TP 표준화 촉진과 관련 권고안(G.8113.1) 승인을 촉구”하는 APT 공동(안)을 만들었고, 한·중·일이 공조하여 복수표준 성공
- ETRI 및 국내 전달망 장비 업체는 ITU-T 기반 OAM 및 보호절체 기술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기술 확보 및 개발 중으로 기존 Cisco, Juniper 중심의 패킷 통신 장비 시장에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이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는 국제 표준 기반이 조성

2012.11.30.(금)

보도자료

2012년 12월 3일(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이태희 과장(☎750-2510)
통신정책기획과 김민표 서기관(☎750-2511) ulabba@kcc.go.kr
천지현 사무관(☎750-2514) jh1000@kcc.go.kr

방통위, 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 대표단 파견

- 국제전기통신규칙(ITRs) 개정 회의 참석 - - 김충식 부위원장, FCC위원장·ITU사무총장 등 면담 예정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국가간 전화요금의 과금 및 정산 등 통신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국제 전기통신규칙(ITRs)을 개정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 ITU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WCIT : 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ITRs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12월 3일부터 14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서는 지난 1988년에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바 없는 국제전기통신규칙(ITRs) 개정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각국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193개 회원국에서 2,0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한국은 방송통신위원회 김충식 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산·학·연·관의 전문가 2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국제전기통신규칙(ITRs)은 전기통신 업무를 제공하고 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국제통신망 및 서비스의 관리, 통신요금의 과금 및 국가 간의 정산, 서비스의 중단, 특별협정 등에 대한 일반 원칙을 다루고 있다. 이번 WCIT-12에서는 1988년 규칙제정 이후 통신시장 상황의 변화 및 기술적 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제이중과세 방지, 모바일 로밍 및 번호오용 방지, 발신자 번호 표시 의무화 등의 개정 요구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며, 특히 정보보호, 인터넷 트래픽 관리 등 인터넷분야를 규제범위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 각국의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회의기간 동안 미국 FCC의 줄리어스 제나카우스키(Julius Genachowski)위원장, ITU의 하마둔 투레(Hamadoun Toure)사무총장 등과 개별면담을 갖고 국제전기통신규칙(ITRs) 개정 관련 협력 방안 및 2014년 ITU전권회의 개최 관련 협조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며, “국제전기통신규칙(ITRs) 개정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 통신사업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ITU 회원국과 협력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통신사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협회 등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국제전기통신규칙(ITRs) 개정안이 국내 통신시장에 미칠 파급효과, 통신사업자의 국제업무 관행과의 부합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왔으며, 지난 10월에는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가입장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붙임 : 참고자료 1부. 끝.

[참고]

국제전기통신규칙(ITRs) 개요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 내용 및 목적

- 전기통신 업무를 제공·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본적인 전송수단, 과금과 요금 정산 등에 대한 일반 원칙과 규정
- 전기통신시설의 범세계적인 운용과 호환성을 촉진하고, 국제전기통신의 효율성 및 조화적 발전과 관련 시설의 효율적 운용 촉진을 목적으로 제정

□ 국제법적 지위

- ITU 헌장·협약을 보완하는 업무규칙(Administrative Regulation)
 - ※ ITU의 업무규칙 : 전파규칙(Radio Regulation), 국제전기통신규칙(ITRs)
- 국제법상 조약(Treaty) 수준의 법적 지위 인정

□ 적용범위

- 회원국의 전기통신 분야를 자국의 사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는 권한 인정
- 회원국이 국내법에 의거 자국의 영토내에서 운용되고 공중에게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타 국제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토록 유도하는 주관청, 공인운용기관(ROA), 사기업이 적용대상임
- 공중에게 제공되는 모든 국제전기통신서비스로, 전송수단 불문

□ 주요 이력

- WATTC(멜버른, 1988) : ITRs 제정
 - ※ WATTC : World Administrative Telegraph and Telephone Conference
- 2006년 전권회의(안탈라, 2006) : WCIT-12 개최와 ITRs 조문에 대한 검토 결의
- 2009년 이사회 : WCIT 개최를 위한 이사회 작업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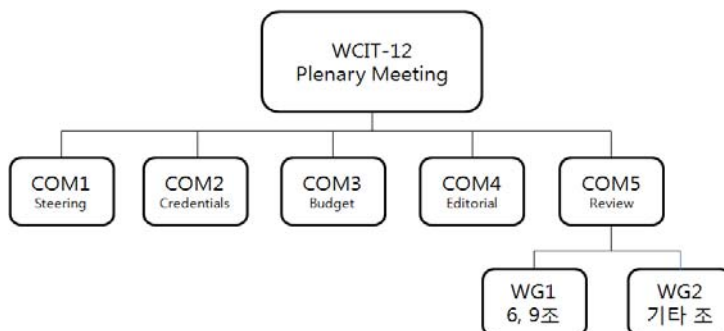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 개요 (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 회의 개요

- 회의명 : 2012년 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
- 기 간 : 2012. 12. 3(월) ~ 12. 14(금)
- 장 소 :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 참가자 : ITU 회원국 대표 및 전기통신 관계자 등 약 1,700여명
- 주요의제
 - 과금(charging) 및 정산(accounting) 관련 규정
 - 국제통신서비스의 이중과세(double taxation) 방지
 - 국제(모바일) 로밍(International (Mobile) roaming)
 - 번호 오용(Number Misuse) 및 발신자 번호표시(Calling Party Delivery)
 - 네트워크 및 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 포함)
 - 국제 인터넷 트래픽 관리
 - ITRs의 규제범위(공인 운용기관 vs. 운용기관)
 - ITR에서 참조하는 ITU-T 권고의 속성
 - 전기통신(Telecommunication) 정의
 - 기타 사항(해상전기통신, 스팸 등)

※ WCIT은 운영·재정 등 5개 위원회와 그 산하에 요금·정산 및 특별협정을 검토하는 작업반과 나머지 조항을 검토하는 작업반 두개로 구성

< WCIT-12 구조(안) >



보도자료

2012년 12월 16일(일)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 이태희 과장(☎750-2510)
통신정책기획과 김민표 서기관(☎750-2511) ulabba@kcc.go.kr

ITU 국제전기통신규칙(ITRs) 24년 만에 개정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제전기통신규칙(ITRs)을 개정하기 위하여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서 국제로밍요금 투명성 보장과 발신자 번호표기 노력 등을 위한 신규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988년 ITRs 규칙 제정 이후 자유화, 민영화된 통신시장 환경을 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우선 서비스 품질제고 및 국제 요금 정산 등 통신관련 개정사항은 회원국간에 큰 이견 없이 채택되었다. 구체적으로 과금 및 정산은 상업적 협정으로 해결, 로밍요금 정보 제공, 경쟁을 통한 로밍 요금 인하 유도, 발신자 번호전달 노력 등을 규정하였고, 트래픽관리(망중립성) 관련 조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유보하였다.

인터넷과 관련된 의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차이로 각자 의견을 반영하는 선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국제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인정하였고, ITRs는 콘텐츠 관련 사항을 다루지 않는다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ITRs의 적용 범위를 ICT로 확대하지 않고 현행(Telecommunication)으로 유지하였다.

또한 보안 및 스팸관련 사항은 회원국이 네트워크 보안 보장과 스팸 방지에 적극 노력한다는 선언적 내용만 담아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ITRs의 규제 대상을 기존 공인운영기관(ROA, Recognized Operating Agency)

에서 허가운영기관(AOA, Authorized Operating Agency)으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이번 WICT-12에서는 본문 규칙 개정 이외 <개도국 및 도서국들의 국제 광대역망 접속지원>, <국제 긴급서비스 번호 통일 노력>, <인터넷 성장 가능 환경조성 노력>, <ITRs의 정기적 개정 노력>, <국제전기통신 트래픽 착신 및 교환의 정산 노력> 등에 관한 **5개의 결의문도 채택**되었다.

특히, <ITRs의 정기적 개정 노력>결의문은 개정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2014년 부산 전권회의에서 논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터넷 성장 가능 환경조성 노력>결의문은 ITU의 권한 내에서 국제 인터넷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공공이슈에 대해 회원국 개별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선언적 내용과 ITU사무총장은 인터넷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광대역통신 개발에 있어 ITU가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WCIT-12 회의는 인터넷 이슈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차이로 ITRs 개정에 대한 회원국들간의 만장일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막을 내리는 아쉬움을 남겼다. WCIT-12 회의의 마지막 날이었던 12월 14일, 이번회의에 참석한 **151개국 중 89개국**이 ITRs 개정안에 최종 서명하였으며, 미국, 영국, 스웨덴, 호주 등 20여개 국가는 인터넷 관련 이슈는 ITU에서 다뤄질 사항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최종서명에 불참하였다. 그 외 국가들은 추후 서명여부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서명에 참여하였다. 금번 ITRs 개정 내용이 국내법이나 국익에 배치되는 내용이 없으며, 인터넷 논의가 2013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2014년 부산 ITU 전권회의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2014년 ITU 전권회의 의장국인 점 등을 고려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WCIT-12 폐회식에서 한국은 인터넷 이슈가 ITU 뿐만

아니라 OECD,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ICANN 등 가능한 모든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형태로 다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고, 이번에 다루지 못한 인터넷 이슈들을 2013년도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2014년 부산 ITU 전권회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 해 나아갈 것을 제안하였다.

끝.

<참고> 개정 ITR 전문: <http://www.itu.int/en/wcit-12/Documents/final-acts-wcit-12.pdf>

국제협력 활동 역량강화 및
성과제고에 관한 연구



140-848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41길 29
발 행 일 : 2012. 12.
발 행 인 : 이 동 형
발 행 처 :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
전 화 : 02) 710-6555
인 쇄 : 홍길동인쇄소
Tel. 02) 123-1234

ISBN : 978-89-97525-06-5-93560 < 비 매 품 >

주 의

1. 이 연구보고서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국립전파연구원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